리버럴아츠

제2권 1호

2022년 6월 30일

다르마교양교육연구소

목 차

▌강준수▐

다문화 사회를 위한 대학 교양 교육 필요성과 방향성 고찰 ····· 5

▌유영희▐

고통 극복을 위한 일기 쓰기 방법 연구 ····· 27

- 영화「퍼스트 리폼드」의 톨러 목사 일기를 중심으로 -

▌허구생▐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본 인문교육의 중요성 ····· 51

: 엘리자베스 1세의 성공과 휴머니즘 교육

『리버럴아츠』(*Liberal Arts*) 편집위원회 운영 및 심사 규정 ····· 77

『리버럴아츠』(*Liberal Arts*) 투고 규정 ····· 82

『리버럴아츠』(*Liberal Arts*) 원고 작성 방법 ····· 85

『리버럴아츠』(*Liberal Arts*) 연구윤리규정 ····· 92

다문화 사회를 위한 대학 교양 교육 필요성과 방향성 고찰

강준수 *

Ⅰ. 서론
Ⅱ. 다문화 공동체 특성과 대학 교양 교육
Ⅲ. 다문화 사회에 맞는 교양 교과 개편 필요성
Ⅳ. 맺음말: 상호이해와 수용의 자세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오랫동안 단일 민족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혔던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양상, 상호 문화 존중, 그리고 인식의 확장을 위한 대학 교양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수행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다문화 사회는 상호 이질성을 인정하고 문화에 대한 이해, 소통, 그리고 공감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교양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교통 통신 체계의 혁신, 그리고 활발한 국제 교류를 통해서 각 국가 사이의 이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 안양대학교 관광학과, 조교수, kangminsk@anyang.ac.kr

이주여성, 그리고 북한 탈북자 등 다양한 문화 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이주로 인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만큼 새로운 국가 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학 교양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은 정체성의 혼란, 부모의 보살핌 결여, 그리고 공동체 소외로 인해서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 공동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은 상호 문화수용, 이질적 문화가치 존중,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 이해와 관련된 대학 교양 교육의 강좌 개설과 커리큘럼의 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 공동체에 대한 인식의 확장이 반영된 대학 교양 교육의 방향성은 향후 한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발전시키면서 통합적인 다문화 공동체 사회로 이끌어 갈 것이다.

주제어 ● 다문화 사회, 대학 교양, 다문화 가정, 정체성 혼란, 문화 다양성

Ⅰ. 서론

현재 한국은 개방, 국제, 그리고 세계와의 긴밀한 교류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민족, 인종, 그리고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일상에서 다양한 피부색, 언어, 그리고 문화를 지닌 사람들을 접하는 상황이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그리고 탈북민 등을 포함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에서 조화로운 공존의 문제는 사회적 화두로 제시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는 민족적 우월감, 자부심, 그리고 문화적 폐쇄성이 지배했었다. 이러한 과거 인식은 새롭게 우리 사회에 편입되어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구성원들에 대한 편견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편견은 다문화 구성원들의 한국 사회 적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다문화 구성원들의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거나 국내 대학에 유학을 온 외국인 유학생이 본국으로 돌아가 미래 한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지도자나 기업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에서의 다문화 교양 교육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의 대학 교양 교육은 다문화 구성원이 지닌 문화 배경에 대한 자부심과 새롭게 편입되어 살아가는 문화 적응력이나 수용력 향상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용력 향상은 관용, 포용, 그리고 차이의 인정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될 수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 대학 교양 교육은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문화 교양 교육은 이주민 자녀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시작된다. 기존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문제 인식은 주로 노동력의 수입이라고 하는 경제적 측면이나 사회에서 고립이나 소외된 노동자 계층으로서의 복지 대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었다.

현재 다문화 사회에서 국내 대학 교양 교육의 문제점은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전문성의 결여에 있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다문화 교육 대상자의 다양한 문화나 출신 배경에 따라 요구되는 세부적 지식이나 이해 수준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효용적 가치를 지닐 뿐 다문화 구성원으로서 "문화적 수용과 이해의 대상이라는 인식"(조원탁, 2020, 4)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민,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인종, 민족, 그리고 문화를 수용하는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현실이다.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건강한 사회로 발전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첨단 정보산업의 발전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진입하면서 인간의 가치와 연관된 근본적 문제나 사상을 추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간 행동과 판단에 질문을 제시하는 비판적 학문인 인문학이 관심의 대상"(공형조, 2022, 16)이 되고 있다.

물질적 풍요로움과 이기심이 팽배한 사회에서 인간 가치와 삶의 궁극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인문학은 중요한 수단이다. 기본적으로 인문학은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삶과 태도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문이다. 인문학은 우리 시대에 정답을 제공하는 학문이 아니라 시대 변화의 흐름에 적응, 대응, 그리고 길잡이가 될 수 있는 학문이다. 인문학의 기능으로서 자아실현, 삶의 질적 향상 수단, 그리고 비판적 사고의 작동을 들 수 있다(공형조, 2022, 20).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현대인은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고 자신을 파악하고 자아실현을 통해서 삶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문학에 대한 소양이 필요하다. 인간은 자아실현을 통해서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유성은, 2007, 15). 대학의 교양 교육에서 어떤 것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교양에만 한정되기보다는 모든 학문 분야에 선행되는 전제이다. 명확한 교육 내용의 선정은 교육 과정, 교수 방법, 그리고 평가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 내용을 선정한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전제는 인성, 교육 방향, 그리고 교육목적 등에 대한 문제로서 합의와 선정의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이다(연지원, 2019, 21).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양은 교양 지식과 실용 지식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교양인으로서 갖출 수 있는 소양과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문학, 역사, 논리, 그리고 수학적인 지식 등을 포괄한다(유성은, 2007, 15). 후자는 현실 생활에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서 당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 법, 부동산, 그리고 요리 등과 같은 실용적 분야의 학문을 의미한다(연지원, 2019, 22).

현대 사회 교양 교육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이념과 사회현상의 측면에서 다양성과 복잡성이 담겨 있다. 교양 교육은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파악이나 인간 본성이 지닌 내적 능력의 함양을 핵심 가치로 한다(최미리, 2001, 11). 독일 미학 사상가인 쉴러(Johann Sciller)에 따르면 교양인은 도덕성, 감성, 통일성, 그리고 다양성을 겸비한 총체적 품성의 인간을 의미한다(이하준, 2018, 495). 교양인은 내면적 자유로움을 통해서 인간의 품격과 인성을 갖추고 다양성을 수용할 줄 아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시대에 맞는 다양성, 포용성,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그리고 공감 능력의 교양인을 키우기 위해서 대학 교양 교육은 중요한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을 통해서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인재 유형은 바른 인성을 포함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이다. 현재는 2022년 10월에 공시되는 교육과정 개편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교육 과정 개정은 교육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추고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국내 대학에서 다문화 공동체에 대한 이해는 핵심역량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학에서 개설된 다문화 관련 강좌는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특수 목적을 지닌 학생들이 대상이다. 이것은 대학의 일반교육 과정에서 제시되는 과정과는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시대에 요구되는 사회 통합적 다문화 교양 과정의 개설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모색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Ⅱ. 다문화 공동체 특성과 대학 교양 교육

문화는 인류가 속한 사회집단의 생활양식이며 총체적인 환경으로 정의될 수 있다(Geertz, 1995, 12). 문화개념은 1871년 영국 인류학자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Edward Burnett Tylor)가 처음으로 정의 내린 것으로 지식, 믿음, 예술, 도덕, 사랑, 규범, 그리고 관습 등을 포함하는 획득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Tylor, 2012, 13). 물론 현대 사회의 문화개념은 다양하고 복잡해서 특정한 개념으로 정의 내리기 힘들다.

현대 사회는 정보통신이나 교통체계의 발달, 그리고 활발한 국제 교류를 통해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빈번한 이동이 진행되면서 문화적 다양성이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 ‘다문화’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이질적 문화가 공통의 제도권 내에서 상호교률 통해서 형성되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서종남, 2010, 10).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국제결혼이 빈번해지고, 인력난의 부족으로 인해

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은 한국 사회를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게 하였다. 다문화 사회는 특정 국가나 사회 내에서 다양한 인종, 민족, 계급, 그리고 종교 등과 같이 복잡한 집단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사회로서 평등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김혜순, 2008, 36).

다문화 사회의 특징은 다양성과 특수성, 집단적 갈등, 그리고 사회적 편견을 들 수 있다(김혜숙, 2011, 23). 다문화 사회는 근대국가가 지향했던 동질성이나 단일성 개념과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활발한 국제 교류와 교통 통신 체계의 발달로 인한 인적 자원의 이동이 빈번하면서 민족이나 인종적 다양성이 생기고 그들만의 특수한 문화가 유입된 새로운 개념이다. 집단적 갈등은 기존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과 이주민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치관이나 문화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편견은 기존의 사회 구성 집단이 새로운 이주 집단을 향한 사회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의미한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국내로 유입된 계기는 1993년 시작되었던 산업연수생 제도를 필두로 국제결혼을 통한 외국인 이주민 여성들이 증가하였다. 현재 한국 전체 인구 100명당 2명은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이것은 한국 전체 인구의 2%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다(서영석, 2017, 10).

대체로 다문화 가정에서 성장한 학생들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 부족,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언어와 문화의 교육방식에서 오는 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박주현, 2016, 18). 다문화 가정에서 성장한 학생들은 이질적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이민자 집단이라는 차별적 시선과 사회적 편견을 경험한다. 이러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다문화 공동체라고 하는 사회적인 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환경적 배경을 갖고 성장한 학생들은 두 개 이상의 문화적 영향력을 지니고 생활을 해왔다는 측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은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자신의 실질적 국적에 대한 심리적 혼란에서 비롯된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혼란은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친다(김도희 · 이경은, 2009, 78).

이제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피부색과 민족을 접하는 것이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흔한 일이 되었다. 한국은 2008년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제정하였고, 다문화 가정으로 국제결혼이주민,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북한의 탈북민 등과 같이 인종, 민족, 그리고 문화가 다른 외국인을 포함하는 가정이라고 지정하고 있다(법무실무연구회, 2010, 17).

한국 사회 초창기의 다문화 가정은 주한미군과 한국 여성의 결혼을 시발점으로 1990년대 농촌사회 결혼 적령기를 놓친 농촌 총각 결혼 장려 운동의 명목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주도적으로 수행했던 동남아시아 여성과 한국 농촌 총각과의 국제결혼이었다. 당시의 국제결혼은 주로 한국 남성과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캄보디아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주류라고 할 수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은 1980년대 후반에 취업 기피 직종이었던 제조, 광업, 그리고 건축 분야의 인력난 해소 목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필두로 1993년부터 본격적인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유입되면서 시작되었다. 탈북민으로 이루어진 새터민 가정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작된 북한 식량난으로 인해서 탈북민들이 증가하면서 남한에 정착하게 된 이주민 가정이다.

<표 1> 다문화 가정 유형[1)]

다문화 가정	가족 구성
국제결혼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 또는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으로 구성
외국인 근로자	한국 남성과 외국 근로자 여성, 한국 여성과 외국 근로자 남성,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남녀로 구성
외국인 이주자	본국에서 결혼한 외국 근로자의 한국 이주
새터민(탈북민)	탈북민 출신 남성 또는 여성이 남한 사람과의 결혼으로 구성

다문화 사회란 언어, 종교, 관습, 국적, 그리고 인종이나 민족 등과 같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의 사회의 구성원 참여로 형성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윤예림, 2020, 2). 단일 민족 국가를 표방해왔던 한국 사회는 이

1) 백승주 · 이동준 · 최진용, 2010, 『다문화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학지사.

주노동자나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증가로 인해서 다문화 공동체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이제 다양한 국적의 이주자들과 공동체를 이루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절하게 모색하고자 하는 다문화주의(Multi Culturalism) 개념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집단이 상호 접촉하면서 상호 가치, 정치, 그리고 제도의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변화 속성이나 정도는 접촉 발생 정도와 연계해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문화 적응은 양 집단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한쪽 집단이 또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변화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임학순, 2007, 44). 문화 적응의 범주는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Segregation), 그리고 주변화(Marginalization)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Berry, 1990, 216). 동화는 주로 이주민이 기존의 사회적 지배 가치에 일방적 접근 경향을 지닌다(이홍재, 2005, 221). 이주민들의 기존 사회 동화과정은 문화, 구조, 결혼, 정체성, 태도 수용, 행위 수용, 그리고 시민적 동화라고 하는 7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Gordon, 1964, 265). 외부 세계에서 기존 사회로 진입한 이주민 집단은 동화의 심화 정도에 따라 이주로 인한 스트레스와 사회적 갈등 양상이 줄어들 수 있다(이홍재, 2005, 222). 오늘날 현대 사회가 다문화 사회개념과 보편적 문화에 대한 인식의 확장은 정보통신과 운송 수단의 급속한 발달에서 기인한다.

국적, 인종, 그리고 민족이 다양한 다문화 사회의 올바른 방향성은 상호 차이를 수용하고 동등한 관계 형성과 함께 공동체적 사회의 구성원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고, 상호 존중과 공존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은 다문화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에 속하게 된 한국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주의가 가진 문제점으로는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거나 상호 이해하는 차원의 개념보다는 한국이 전통적으로 지녀온 단일 민족 개념과 상반되는 개념으로만 작동한다

는 것이다(김현미, 2007, 103). 현재 지자체나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은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보다는 이주민의 동화에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한건수, 2003, 149).

기존의 한국 사회는 단일 민족과 관련된 이데올로기 집착으로 인해서 이질적인 문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배타적이었다. 전 세계는 지역적 경계가 무너지고 공동체적 구성체로서 나아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 현상은 개방성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이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향우 한국 사회가 이러한 다문화 공동체적 인식의 확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학 교양 교육의 커리큘럼에 다문화 사회에 대한 문제 인식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다문화 시대 대학 교양 교육은 국내 결혼 이주 여성의 주요 출신국인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사회와 문화를 포함하면서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역량의 확장이 필요하다. 특히 타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커리큘럼과 대학 교양 교육 과정의 개편이 필요하다. 교양 교육의 기원은 리버럴아츠 칼리지(Liberal Arts College)이고 기초학문의 증진을 위해서 교양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부 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백승수, 2018, 232). 리버럴아츠 교육이념의 핵심은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적응력을 함양하는 것이다(박병철, 2019, 163). 끊임없는 변화의 상황 속에서 기존의 교육이념만을 고수하는 것은 낡은 이념만을 주입하는 한계성을 갖는다. 또한 리버럴아츠의 교육이념은 인간적 가치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에 있다(손승남, 2017, 13). 리버럴아츠 교육이 추구하는 본질은 인간의 가치회복을 통한 사고의 유연성에서 찾을 수 있다. 리버럴아츠 교육은 창의적 사고, 문제의 해결 능력, 그리고 창의력 강화에도 이바지하고자 한다(백승수, 2017, 15).

리버럴아츠 교육개념은 단순히 학문적인 측면에 한정되지 않고 학생들이 대학 생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관계, 학점, 장학금, 그리고 취업 등의 문제를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리버럴아츠 교육개념은 다양한 현실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강좌 개설을 유도하면서 현실적 문제해결

에 이바지하고자 한다(심보경, 2020, 158). 4차 산업혁명의 여파는 현대 사회에서 대학 교양 교육을 통해서 미래지향적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는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대학 교양 교육의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다(김태경, 2018, 21).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관련하여 대학생의 인격체 형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형식적 틀에 맞는 일반적 교육과 좀 더 폭넓은 사고의 확장을 위해서 형식적 틀을 벗어난 자유 교육이 제시된다(윤유진, 2020, 311). 대학 교양 교육이 현실에 직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주도적으로 앞장서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시대적 흐름인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든 사회이기도 하다. 오늘날 대학들은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맞게 대학 교양 교육의 관점을 시대에 맞게 전환하고 지속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것은 시대적 교양인을 배출하고자 하는 대학 교양 교육이 담당하고 있는 책임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제 리버럴아츠 칼리지 개념의 대학 교양 교육은 단순한 지식 획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는 교양인 양성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4차 산업혁명이나 다문화 시대 진입은 대학 교양 교육이 간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서 새로운 인식과 관점의 교과 교육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교양 교육은 다문화 이주 가정의 자녀나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특성과 요구에 맞는 교육 내용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다문화 교양 교육은 일방적인 한국 문화 체험 활동 위주의 교육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문화 구성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중요성과 이해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문화 사회의 대학 교양 교육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일방적 소개를 벗어나 다문화 구성원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문화의 수용, 이해, 다양한 문화적 가치의 상호 인정이라고 하는 포용성을 토대로 한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Ⅲ. 다문화 사회에 맞는 교양 교과 개편 필요성

현대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사회가 확장되면서 다양한 민족, 인종,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진입하였다. 과거 한국은 단일 민족이라는 자부심에 심취하여 이질적인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기존의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타성, 편견, 그리고 거부감을 유지하는 태도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식적 확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의 교육 방향은 대학 교양 교육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어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나 국내 가정의 학생들이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상호이해와 존중의 태도로 다문화 공동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성을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

세계화의 물결, 국가 사이의 경계 해체,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한 물리적 거리의 약화, 그리고 자유로운 인적 이동의 증가는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구성원들의 존재를 낯선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자연스러움으로 인식하게 한다. 대학 내에서도 다양한 다문화 가정 출신이나 외국인 유학생이 공존하면서 문화와 의식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의 흐름으로 인해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신속하게 제공되지만, 문화와 인식의 변화는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현대 대학 교양 교육에서 다문화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현재의 대학 교양 교육은 기존의 품성, 인성, 그리고 다양한 지식을 갖춘 교양인 육성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인문학은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치열한 문제 제기 과정을 토대로 창의적 사고와 해결책을 다양한 시선에서 바라보게 한다는 측면에서 탐구 필요성이 있다(문종길, 2015, 34). 이것은 인문학이 삶의

기준이나 가치관 확립에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문학이 지닌 이러한 기능은 인간 주체의 자기 형성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교양 교육의 중요성을 내포한다. 대학에서 교양 교육은 인간, 사회, 그리고 자연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이성적 사유나 독립적 행동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 마련의 밑거름이기 때문이다(심영섭, 2015, 12). 다시 말해서 교양 교육은 편견에 치우치지 않는 자유로운 학문 탐구를 통해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양 교육이 지닌 다양성, 포용성, 그리고 편견의 배제는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다문화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인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학문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의 대학교육에서 교양은 전통적 가치나 익숙한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능력과 다양한 문화와 대상이 지닌 가치 수용과 포용하는 학문적 자세 고양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다문화와 다원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에서 단순한 교양인 육성을 넘어서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민족, 인종, 그리고 국가 출신의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의 폭 확장이나 문화적 수용성과 포용성에 대한 다문화정책이 담긴 대학의 교양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대학에 입학한 다문화 가정 출신의 자녀들은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지녔을 가능성이 있다. 결혼 이민 출신이거나 이주노동자인 부모 세대가 경제적 여건이 미흡한 경우가 대다수인 상황이다. 따라서 이민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의 보살핌이나 성장 과정에서 언어 구사 능력의 부족 등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정체성 혼란, 사회적 차별, 편견, 언어 구사 능력의 부족, 그리고 문화적 이질감 등을 들 수 있다(김현미, 2008, 11).

정체성의 혼란은 이주 부모의 문화와 한국 사회문화의 이질감에서 오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은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문화와 자신이 한국 사회에서 성장하면서 경험했던 문화가 차이를 지니면서 부

모와 자식 사이의 원활한 유대감 형성 결핍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차별은 피부색과 외모의 차이로 인한 동년배들의 소외와 고립으로 인한 차별과 편견을 의미한다.

다문화 가정 출신 대학생은 이러한 소외와 고립의 과정에서 대화 상대의 부족과 부모 세대와의 대화 단절로 인한 언어 구사 능력의 부족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다문화 시대 대학 교양 교육은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의 쇄신, 다양성의 수용,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대학들은 교양 교육의 구조가 기초 영역, 배분 이수 영역, 전공기초영역 그리고 자유 선택적 일반교양 부문으로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백승수, 2017, 15).

인문, 사회, 그리고 자연 과학을 아우르는 기초학문 분야의 교양은 일반적 지식이나 보편적 이성을 다루고 있다(백승수, 2018, 231). 따라서 교양 학문 영역은 다문화와 다원화 사회의 학습자를 포괄하고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커리큘럼의 개선이나 변화 필요성이 요구된다. 교수자는 다문화 사회의 방향성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서 실질적인 다문화 시대 교육의 인식적 확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물론 학습 강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주체는 학생이어야 한다(이원석, 2021, 49).

다문화 시대 교양 지식은 단순히 인간 품성, 본질적 가치, 그리고 의미를 추구하는 범위를 확장하여 다원적 가치 존중, 다양한 문화의 가치 이해, 상호 소통 능력의 함양, 문화적 포용성, 다문화 시대에 맞는 창의적 사고의 함양 등이 필요하다(서종남, 2010, 13). 기존의 한국 사회는 단일 민족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탓에 다원적 가치에 대한 존중이 미흡했다. 이러한 성향은 다양한 문화가 가치를 이해하기보다는 차이를 배척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했다.

이질적 문화에 대한 배척은 공감 능력이나 문화적 포용성의 부족을 드러냈다.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현대 사회에서 시대를 주도하는 보편적 인재 양성의 의무가 있는 대학에서 교양 교육은 시대를 반영한 커리큘럼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표 2> 다문화 시대 교양 교육 개선사항[2)]

	개선 내용
1	다원적 가치 함양
2	다양한 문화가치 이해 함양
3	이질적 문화에 대한 원활한 공감 능력 함양
4	다문화 포용성 함양
5	다문화 시대의 창의적 사고 함양

다문화 시대 교양 교육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균형적 인간 양성이라고 하는 교육의 목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문화 시대 교양 교육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 능력과 존중 태도의 함양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다문화 시대 교양 교육의 목표 수행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다양한 다문화 체험과 지식이 함양되어야 한다.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가 직면한 어려움은 오랜 시간 단일민족 공동체에 익숙한 분위기에서 경험하는 이질적 문화에 대한 거부감, 노동 시장의 분할에 따른 계층 사이의 갈등, 인종과 종교의 차이에서 오는 다양한 갈등 등이 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상호 이해, 소통, 그리고 존중을 통해서 다문화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다.

다문화적 가치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분위기 형성에 대학의 교양 교육은 주도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다문화 사회는 우리 사회에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출산율 저하, 그리고 대외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개 이상의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인재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고 출산율에도 기여 가능한 장점이 있다. 다문화 시대 대학 교양 교육의 핵심 가치는 상호 차이를 수용하고 긴밀한 대화, 소통, 그리고 교감을 통해서 차이를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식의 확장을 이룰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대학의 교양 교육의 개편과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다문화 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문화 교육은 기

2) 서종남, 2010,『다문화교육』, 학지사, p. 13.

본적으로 교육제도를 재구성하는 것이고 성별, 언어, 사회계층, 인종, 그리고 민족 집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Banks, 1993, 17).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인종이 지닌 언어적이고 학문적인 욕구에 부합되는 교과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Suzuki, 1984, 70).

다문화 교육이 강조하는 것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인정하고 개방적인 태도와 상호 의존성이다. 다문화 교육의 특징은 개인과 사회가 지닌 타 문화와의 상호 연결성 인식, 다양한 문화집단 내에서의 정체성 확립, 그리고 왜곡과 편견의 최소화를 들 수 있다(김선미 · 김영순, 2008, 54-59). 개인과 사회가 지닌 타 문화와의 상호 연결성 인식은 종교, 계층, 종교, 인종, 그리고 성별 등이 갖는 다양성을 인식하면서 차이의 인정을 통해서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면서 상호 소통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대학 교양 교육의 개편과 방향성 제고에 앞서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은 다문화 가정 출신의 대학생들이 부모의 문화적 배경과 자신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대학 요양 교육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으로 정체성 확립에 관한 문제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문화집단 내에서의 정체성 확립은 다양한 배경을 지닌 집단들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벗어나 확립에 이르게 해주는 교육 행위를 의미한다.

왜곡과 편견의 최소화는 차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왜곡된 시선으로 다름을 파악하는 성향을 자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 교육은 이러한 잘못된 편견을 줄이고자 노력할 수 있는 인식의 제공이 필요하다. 다문화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인간에 대한 존중, 불평등과 편견에 대한 인식을 통한 쇄신 의지와 사회정의 실현과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다(Coelho, 1998, 36). 따라서 대학 교양 교육은 다문화 교육의 지침과 방향성을 토대로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상호이해와 수용의 자세

세계화는 현대인들에게 다양한 기회, 선택의 자유,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족, 계층, 그리고 국가 사이의 갈등을 초래하는 결과도 발생시켰다. 이러한 갈등의 예로서 빈번한 인적 교류 및 이동에 따른 다문화 현상을 들 수 있다. 한국 사회도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전통적으로 단일 민족을 지향해왔던 한국 사회는 이질적 문화와 배경을 지닌 이민자들과 갈등의 여지가 존재하고 있다.

한국에 정착하여 다문화 가정을 이룬 아이들이 대학교육을 받고 우리 사회에서 굳건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교양 교육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 교양 교육에서 다문화 사회에서 노동 이민자 가정의 학생,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결혼 이주민 가정의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상호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대학의 교양 교육에 대한 존재는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이 왜 현실에서 필요한 학문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양 교육은 기초학문 분야를 다루면서 비판적 사고, 사고의 확장, 그리고 행동 판단이나 자아 성찰 수행에 대한 인식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발전적 사회 진입을 위한 토대가 된다. 다시 말해서, 교양 교육은 단순히 인간의 본질, 품성, 그리고 인성을 갖춘 교양인의 함양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해서 진보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변화 가능성을 탐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는 다문화 가정 출신 대학생들의 가치관, 자아정체성 혼란, 그리고 우리 사회에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 도출로 연계될 수 있는 교양 교육 내용의 확장이 필요하다. 대학의 교양 교육은 단순히 교양인으로서 살아가는 방식, 합리적 행동, 그리고 자아실현의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 함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

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다문화 시대 대학 교양 교육이 다문화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와 조화를 이루고 잘 적응해나갈 수 있는 교육 제공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문화 시대 대학 교양 교육은 다양한 문화적 가치와 이해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통해서 원활한 상호 소통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문화 시대 대학 교양 교육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편견, 구분, 갈등, 그리고 대립을 넘어서 상호 상생하고 화합할 수 있는 다문화 공동체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다문화 사회 진입은 계층 간의 갈등 가능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이나 고령화 시대에 인구 유입의 기회가 될 수 있고, 한 개 이상의 문화를 습득하고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국제화 인재의 양성이라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시대 대학의 교양 교육은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편견, 인식, 그리고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내용과 체험 활동에 대한 구체적 방향성과 커리큘럼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 교양 교육이 중요한 것은 대학이라는 교육 체제가 사회 준비생들을 교육하는 전초기지이기 때문이다. 다문화 시대 대학의 교양 교육은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우리 사회에 일방적으로 적응하는 것의 강요가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편견을 해소하고 인종차별, 문화, 그리고 종교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이해와 수용의 자세를 인식하고 진지한 논의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커리큘럼의 확보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공형조, 2022,『굿모닝 인문학』, 레몬북스.

김도희 · 이경은, 2009,「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의 양육 효능감에 관한 경로분석 연구」,『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2, 한국가족관계학회, 77-98.

김선미 · 김영순, 2008,『다문화교육의 이해』, 한국문화사.

김태경. 2018,「21세기 대학의 역할과 리버럴아츠칼리지— 아키타 국제교양대학이라는 물음」,『비교일본학』 44, 한양대학교 일본학 국제비교연구소, 21-38.

김현미, 2008,『이주자와 다문화주의』, 현대사회와 문화.

김혜숙, 2011,『생활주제와 통합된 유아다문화 교육의이론과 실제』, 양서원.

김혜순, 2008,「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한국사회학』 42-2, 한국사회학회, 36-71.

문종길, 2015,『더 나은 삶을 위한 성찰의 힘 인문학(윤리와 사상)』, 책과나무.

박병철, 2019,「리버럴아츠 교육과 한국의 교양교육」,『교양교육연구』 13-1, 한국교양교육학회, 163-180.

박주현, 2016,『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실천』, 창지사.

법무실무연구회, 2010,『다문화가정 지원 및 정착 도우미』, 예스폼.

백승수, 2017,「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양교육의 방향 모색」,『교양교육연구』 11-2, 한국교양교육학회, 13-51.

백승수, 2018,「국립 리버럴 아츠 칼리지 설립의 교육적 타당성 고찰」,『교양교육연구』 12-5, 한국교양교육학회, 231-250.

백승주 · 이동준 · 최진용, 2010,『다문화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학지사.

서영석, 2017,『국내 출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아픔과 분투』, 집문당.

서종남, 2010,『다문화교육』, 학지사.

손승남, 2017,「한국형 리버럴아츠칼리지(K-LAC)의 가능성 탐색」,『교양교육연구』, 11-1, 한국교양교육학회, 13-37.

심보경, 2020,「대학 교양교육에서 리버럴아츠 강좌 운영의 의의 – 삶의 큰 질문: 인생(B.Q.L:LIFE) 강의를 중심으로」,『언어학연구』 55, 157-177.

심영섭, 2015,『인문학의 성찰이 없는 경제학은 허망하다』, 책과나무.

유성은, 2007,『명품인생을 창조하는 목표관리와 자아실현』, 중앙경제평론사.

윤예림, 2020,『다문화 사회: 다양성을 존중하는 우리』, 풀빛.
윤유진. 2020.「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대학의 교양교육의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교양교육연구』14-2, 한국교양교육학회, 311-325.
이원석, 2021,「<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의 회고와 전망」.『리버럴아츠』1-1, 37-85.
이하준, 2018,「교양예술교육의 목적과 교육과정에 대한 재사유-실러의 미적교육론의 관점을 중심으로」,『동서철학연구』90, 한국동서철학회, 491-515.
이흥재, 2005,『문화예술정책론』, 박영사.
임학순, 2007,『문화예술교육사업과 파트너십』, 북코리아.
조원탁, 2020,『다문화 사회와 다양성』, 양서원.
최미리, 2001,『미국과 한국 대학의 교양 교육의 비교』, 양서원.
한건수, 2003,『세계화와 문화 변동: 탈영토와, 초문화와 그리고 크레올화, 세계화와 사회변동』, 강원대학교 출판부
Banks, James, 2002,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New York: Allyn and bacon.
Berry, John. Widdup, 1990, "Psychology of acculturation," In J. J. Berman,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9: Cross-cultural perspectives*,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1−234.
Coelho, Elizabeth, 1998, *Teaching and learning in multicultural schools*, UK: Multilingual Matters.
Geertz, Clifford, 1995, *After the Fact: Two Countries, Four Decades, One Anthropologis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Gordon, Milton, 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The Role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 Origi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uzuki, BOB, 1984, Curriculum transformation for multicultural education, *Education and Urbansociety* 16-3, 294-322.
Tylor, Edward Burnett, 2012, *Primitive Cul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for a Multicultural Society

Kang, Junsoo
(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detailed discussion on the various aspects in Korean society, which has long been obsessed with the mono-ethnic ideology, as it enters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respect for mutual cultures, and the necessity of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to expand awareness. Basically, in a multicultural society, there must be an effort to acknowledge each other's heterogeneity and to understand, communicate, and empathize with each other's cultures. In order for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o adapt well to university life and become healthy members of society, liberal arts education at universities can play an important ro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actively migrating between countri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novation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s, and active international exchange. As South Korean society has entered a multicultural society due to the migration of people with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such as migrant workers,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North Korean defectors, the need for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to form a new national community is raised. This is because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have difficulties adjusting to Korean society due to identity confusion, lack of parental care, and alienation from

the community. Therefore, Korea, which constitutes a multicultural community, needs to open college liberal arts courses and secure curriculum related to mutual cultural acceptance, respect for intellectual cultural values, and understanding of cultural diversity. The direction of college liberal arts education reflecting the expansion of awareness of this multicultural community will lead to an integrated multicultural community society while developing Korea's cultural diversity in the future.

Keyword ● multicultural society, university liberal arts, multicultural families, identity confusion, cultural diversity

▌논문투고일 : 2022. 6. 12. ▌심사완료일 : 2022. 6. 18. ▌게재확정일 : 2022. 6. 26.

고통 극복을 위한 일기 쓰기 방법 연구
- 영화「퍼스트 리폼드」의 톨러 목사 일기를 중심으로 -

유 영 희*

Ⅰ. 자기성찰을 위한 일기 쓰기
Ⅱ. 톨러 목사의 일기 분석
Ⅲ. 고통 극복을 위한 일기 쓰기 모색 - CTFAR을 중심으로
Ⅳ. 나가는 말

국문요약

일기 쓰기는 자기 성찰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자기 성찰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러므로 일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자기 성찰의 효과는 달라진다. 영화「퍼스트 리폼드」의 주인공 톨러 목사는 자기가 큰병에 걸렸다는 것을 느낀 후 구원을 받기 위해 일기를 쓰기로 한다. 톨러는 마이클의 죽음을 계기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바크 회장을 대상으로 자살 테러를 시도한다. 이런 톨러의 선택은 일기를 쓸 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성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자기 객관화를 위한 일기 쓰기 방법으로 브룩 가스띠요가 개발한 CTFAR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자신의 감정이 일어난

* 철학박사, 독립연구자, formago@hanmail.net

원인으로 사고를 탐색할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상담심리학에서 인지치료기법과 상통한다. 인지치료기법에서는 사람들이 문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자동적 사고 때문에 부적절한 감정과 행동이 촉발된다고 보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동적 사고를 점검하자고 한다. 어떤 사고가 감정을 일으켰는지 발견하고, 그 사고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일기를 쓰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다. 현재 대학의 교양교육은 자기 인지 과정에 대한 점검 기회가 부족한 편이다. 적절한 일기 쓰기 교육은 자기 성찰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 교양교육, 일기, 인지치료기법, 브룩_가스띠요, CTFAR

Ⅰ. 자기 성찰을 위한 일기 쓰기

대학의 교양 교육에 글쓰기 강좌가 있지만, 자신의 인식 과정을 성찰하는 글쓰기 기회는 많지 않다. 학문적 글쓰기를 강조하는 대학의 분위기에서 자기 성찰 글쓰기가 자리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양 교육의 목표가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고 세상과 소통하는 힘을 키우는 데 있다면(유영희, 2020, 107.) 자기 성찰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하면 안 될 것이다.

자기 성찰을 위해 글쓰기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은 많이 보고되고 있다.[1] 본고에서는 글쓰기 중에서도 일기 쓰기를 주 소재로 다루는 영화「퍼스트 리폼드」(슈레이더, 2017.)를 중심으로 톨러의 선택에 어떤 인지적 오류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고통 극복을 위한 일기 쓰기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고통 극복이라는 목적으로 일기를 쓴다고 하면, 저널치료라는 분야가 있어서 일기보다는 저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좋지만, 저널 역시 하루라는

1)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글쓰기 치료'로 검색하면, 도서 27권, 학위논문 39건 외 수십 건의 기사들이 나온다.

뜻인데다[2], 저널이라는 용어가 잡지로 오해될 여지가 있어서 여기서는 일기라는 익숙한 단어로 쓰기로 한다.

글쓰기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통 극복에 도움이 된다. 일기 쓰기는 이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일기 쓰기는 심리치료를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세히 표현할 때 자신에 대한 통찰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통찰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일기 쓰기 방법이 개발되어 있다.[3]

본 논문에서는 일기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적 글쓰기보다 일기에서 발견되는 인지 과정을 중심으로 톨러 목사의 일기를 분석하고 그것이 톨러 목사의 자살 테러 선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후에, 건강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기를 쓰면 좋을지 CTFAR 방법을 중심으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톨러 목사가 처음에는 표현적 글쓰기를 하겠다고 시작했으나 다른 글쓰기로 나갔기 때문이다. 톨러 목사(이하 톨러)의 일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CTFAR 방법이 유효하다.

Ⅱ. 톨러 목사의 일기 분석

1. 영화 내용 이해

영화 줄거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퍼스트 리폼드 교회 목사인 톨러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환경 오염의 주범 바크 회장을 자살 테러로 응징하려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혼자 죽기를 선택한다는 내용이다.

줄거리만 보면 복잡하지 않지만, 이 영화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해결 과제가 있다. 하나는 톨러는 죽었는가? 아니면 메리

2) 김춘경(2016, 1656-1657.) 저널은 하루 또는 오늘을 뜻하는 프랑스어 'journée'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저널치료라고 하면 자신의 감정, 태도, 신체 감각 등 내적 이미지를 탐험하는 내면 여행이라는 의미를 띤다.

3) 일기 쓰기의 여러 방법은 Adams(2006a)와 Adams(2006b)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에게 안기며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톨러 목사의 테러 또는 자살은 순교인가? 아니면 하나님 뜻을 빙자한 폭력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과 톨러 목사 일기를 분석하는 것은 긴밀한 관계가 있다.

톨러 목사는 뉴욕 스노우브릿지에 있는 '퍼스트 리폼드' 교회에서 사목을 하고 있다. 1767년에 첫 삽을 뜬 이 교회는 올버니 주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인데, 그 옆에 있는 '풍요로운 교회'의 전신이다. 오래된 교회답게 스노우브릿지 전투 흔적이 남아있어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박물관[4] 같은 교회인데, 톨러는 기념품을 파는 곳이라고 한다. 일요일 예배에는 보통 다섯 명 정도가 참여한다.

그에 비해 '풍요로운 교회'는 기업 느낌이 들 정도로[5] 규모가 크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 재퍼슨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톨러를 '퍼스트 리폼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초빙한다. 부임 전 톨러는 아버지, 할아버지 모두 군목이었던 가족의 전통을 이으려고 아들에게 입대를 권했다가 이라크 전투에서 아들을 잃고 아내와 이혼한 후 캔터키에서 글만 쓰고 있었다.[6]

'퍼스트 리폼드' 교회 250주년 재봉헌 기념일이 두어 달 남은 때, 메리라는 임신 20주 된 여자가 남편을 상담해달라며 찾아온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아이가 살아갈 날을 염려하는 남편이 낙태를 종용한다면서 메리는 자기가 아이를 낳게 남편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렇다고 마이클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것은 아니다. 마이클이 죽은 후 메리는 톨러에게 마이클의 신앙이 깊지 않았다고 말해준다.

마이클 자신도 환경 운동을 하다 구치소에서 수감되었다가 메리 임신 소식을 듣고 가석방을 신청하여 나왔는데, 환경 운동을 하다가 죽음을 당한 동

---

4) '풍요로운 교회' 담임 목사 재퍼슨은 '퍼스트 리폼드'를 박물관이라고 표현한다.

5) 마이클이 상담하러 왔을 때 톨러 목사가 '풍요로운 교회'에 상담 전문가가 많으니 거기로 가라고 하자, 마이클은 그 교회는 기업 같아서 싫다고 한다.

6) 우혜경(2019, 70)은 톨러가 아들이 죽고 결혼 생활이 파탄 난 후 목사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다. 톨러 집안은 대대로 군목이었다고 말하는 점, 결혼 전 에스더와 사귈 때도 이미 목사였다는 암시가 분명하게 나오기 때문이다. 뒤에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료들에 대한 부채감으로 우울한 상태이다. 톨러는 마지못해 승낙하고 메리 집에 방문한다. 그때 마이클은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면서 딸을 이런 세상에서 살게 할 수 없다고 한다.[7] 그러나 마이클은 자살을 선택하고,[8] 톨러는 마이클의 유언대로 장례를 치러주면서 환경 오염에 관심을 갖게 된다.

드디어 톨러는 마이클이 남긴 환경 오염 자료와 폭탄 조끼를 보면서 마귀의 계략에 맞서 싸운다는 명분을 내세워 바크를 응징하기로 결심하고 그동안 쓴 일기를 찢어 버린다. 톨러는 마이클이 만든 자살 조끼를 입고 공장에 갔다가 사람이 많아 포기하고 다른 기회를 모색한다. 250주년 재봉헌식에 바크 대표가 올 때 자살 조끼를 입고 바크에게 달려들어 자폭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만삭의 메리가 참석한 것을 확인하고 혼자 죽기로 계획을 변경한다.

온몸에 가시철조망을 둘러 피를 내면서 변기를 닦는 세척제를 먹으려는 순간 메리가 사제관에 나타나고 둘은 열렬히 껴안으며 입을 맞춘다. (1:48:08) 여기서 메리와 만나는 장면은 톨러의 환상이다. 그전에 이미 재퍼슨 목사가 들어오려다가 문이 잠겨 못 들어오는 장면으로 메리의 등장이 허구임을 보여준다. 게다가 이 순간 내내 '퍼스트 리폼드' 교회에서 부르는 에스더의 찬송가[9]가 영화가 끝날 때까지 들리는 것을 보면, 톨러는 죽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는 톨러의 일기를 분석하면서 파국으로 치달은 톨러의 선택에 어떤 인지적 문제가 있었는지 분석할 것이다.

---

7) 마이클이 무슨 근거로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고 말하는지 나와 있지 않다. 메리가 출산 직전 톨러에게 아이의 성별을 암시하는데 파란색이라고 알려주기 때문이다. 마이클의 예측이 옳지 않다는 증거로 이 대사를 넣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8) 마이클의 자살이 환경 오염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마이클 시신을 수거하러 온 청소부는 마이클의 아버지가 매우 지독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마이클의 성장 과정의 문제가 마이클의 우울감과 자살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암시하는 대목이다.

9)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이다. (1)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 후렴: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2)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 두루광명하게 비치고 /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3) 주의 보좌로 나아 갈 때에 /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https://hoibin.tistory.com/entry/405%EC%9E%A5-%EC%83%88%EC%B0%AC%EC%86%A1%EA%B0%80%EC%95%85%EB%B3%B4PPT%EA%B0%80%EC%82%AC)

2. 톨러 목사의 일기 내용

영화는 톨러가 일기를 쓰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시작한다. 톨러는 일종의 실험을 위해서 쓴다고 한다. 1년 후에는 실험이 끝나면 태우기로 결심하고 수정하거나 지우지 않기 위해 펜으로 노트에 쓰기로 한다.

톨러가 일기라는 형식으로 기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는 않다. 아들을 정당성 없는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마이클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아들의 죽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을까 짐작해보지만 그럴 개연성은 적다. 톨러는 마이클에게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군종 목사를 지낸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고, 일기에도 아들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마이클이 톨러에게 아들을 전쟁터에서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 때문에 존경한다고 고백할 때도 부정하지 않았다.

톨러가 일기 쓰기를 왜 선택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기도는 무겁고 답답한 데 일기는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다른 이'에게 말을 거는 형식이어서 교회에서 하는 기도보다 진정성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이'란 당연히 하나님일 것이다. 톨러에게 일기 쓰기는 구원을 얻는 효과적인 수단인 셈이다.

여기서 구원은 아마도 마음의 안정이거나 건강의 회복일 것이라고 추측된다. 밤에 소리지르며 깨어나던 날 톨러는 몹시 힘들어했다. '첫 번째 경고를 느낀 후 5개월이 지났다. 새벽 3시에 울부짖으며 깨서 교회 벤치에서 잤다.'(47:30)는 일기를 보면, 확실히 톨러는 병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톨러는 자기가 큰병에 걸린 것을 직감하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일기를 쓰기로 한 것이다.

톨러가 처음 일기를 쓰기로 결심했을 때는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려면 일상의 감정을 가감 없이 그대로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이렇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쓰는 글쓰기를 표현적 글쓰기(페니베이커, 2017.)라고 하는데, 심리 치료에 효과가 있어서 글쓰기 치료 현장에서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쓰겠다는 처음 결심과는 달리, 톨러는 자기감정 노출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풍요로운 교회 청년부 모임에 다녀와서 '다른 사람 생각을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 예수님께서 다른 이의 눈치를 봤던가?'라고 썼다가 바로 다시 '방금 쓴 문장이 수치스럽다'라고 쓰고, 뒤이어 '이 일기에는 진정성 대신 자만이 가득하다. 자만이라는 단어는 쓰면 안 되는데, 하지만 지울 수 없다. 그저 기도할 뿐이다.'(8:00)라고 쓴다. 다른 날 일기에는 '하찮은 병 때문에 심기가 불편하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다'(37:00)라고 쓰고 있다.

마이클이 죽은 날 일기에는, '눈을 감기 무섭게 황량함이 밀려왔다.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미치겠네 했을까? 주님의 구원을 기대했을까? 이 일기는 찢어버리겠다. 이 일기는 내게 평안을 주지 않는다. 그저 자기연민으로 가득할 뿐이다.'(46:33)라고 쓴다. 이렇게 톨러는 구원을 위해 자신의 일기를 끊임없이 검열한다.

3. 톨러 목사의 일기와 행동 특징

톨러는 자신의 감정을 검열하면서 자신의 행동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영화의 처음에 마이클이 톨러에게 술을 권할 때 술은 절망을 이기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서 사양했지만, 사실 자기는 이미 알콜 중독 상태이다.

일기를 쓰는 순간에도 술을 마시고 있고, 나중에는 아침 시리얼에도 술을 부어 먹는다. 심지어는 병원 약도 술에 타 먹는다. 그런데도 어느날 아침에는 술잔을 일기장 옆에 놓고 술을 마시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하루일과를 준비했다'고 쓰고 있다(1:12:59).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풍요로운 교회' 합창단 지도자 에스더가 건강을 걱정하며 다가올 때 톨러는 당신은 나의 부족함과 실패만 생각나게 한다면서 사소한 걱정이나 하는 방해물이라고 소리지른다(1:12:32).[10] 마치 자기에게는 신성한 의무만이

10) 에스더는 아마도 그들이 청춘인 시절에 서로 호감을 가지고 데이트를 했던 사이였을 것이

주어진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톨러는 메리가 출산을 위해 버펄로에 사는 언니 집에 간다고 할 때는 버펄로에 찾아가겠다(1:28:30)고 한다. 이런 행동은 에스더가 자신의 건강을 염려할 때 화냈던 모습과 상반된다. 그러나 톨러는 자신이 메리에게 사소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심지어 톨러는 교회에 알리지 않고 하루종일 메리와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메리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기분이 좋아진 것을 주님이 주신 운동의 치유 효과라고 한다(1:01:01). 그러나 톨러의 기분이 좋아진 것은 메리와 함께 보낸 시간이 즐거웠기 때문이다. 톨러는 20년 이상 자전저를 타지 않았고, 자전거 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교회에 알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마이클의 유언대로 장례를 치른 후 톨러는 마이클의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보고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악덕 기업을 응징하기로 하고 '주님을 공경한 이들은 상을 받을 것이며, 땅을 어지럽히던 자들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일기를 쓴 날, 앞에 쓴 것을 다 찢어버리고(1:17:23) 이제부터 쓰는 일기만이 의미 있다고 한다.

사실 이런 태도 변화는 예견되는 것이었다. 톨러는 마이클을 상담할 때도 여전히 사명감에 압도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메리의 부탁으로 마이클을 처음 만난 날, 마이클이 절망만 남았다고 하자, '절망의 답은 용기입니다. 절망과 희망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라고 답하면서 마이클의 얼굴은 살펴보지도 않고 마이클을 설득하는 데 급급했다. 그러고 나서 톨러는 그날 일기에 '밤새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이 된 기분이다.'(16:24)[11]라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다. 에스더는 톨러에게 우리의 창창했던 시절을 기억하는지 묻기도 하고(27:24), 에스더가 톨러에게 그들의 오래전 관계가 선을 넘은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묻는 장면도 있다(32:39). 한 관광객이 톨러에게 합창단 지도자가 목사의 오르간 연주에 반해서 좋아했다는 소문이 알고 있느냐고 물을 때 처음 듣는 말이라면서도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 둘은 확실히 깊이 사귄 사이임이 틀림 없다.

11)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야곱은 어머니의 조언대로 쌍둥이 형 이삭에게 주는 아버지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고 형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도망가다가 천사를 만난다. 야곱은 천사의 축복을 받기 위해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고 천사에게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축복도 받는다. 톨러가 자신을 야곱에 비유한 것에서 자신의 역할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화가 즐거웠다고 썼다. 이것을 보면, 톨러는 자신에게 사명에 헌신하는 것만을 허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톨러의 일기를 보면, 톨러 목사의 겉으로 보이는 삶, 스스로 보여주고 싶은 삶은 헌신과 순교지만, 내면의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바크 기업에 테러를 위해 갔다가 실패하고 미소된장국과 회를 먹고 돌아와서 쓴 일기에는 그 식사가 즐거웠다고 쓰고 있다(1:31:23). 이 글은 톨러의 인간적 감정이 슬쩍 새어 나온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테러 실패에 대한 좌절감보다 맛있는 식사가 더 의미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톨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단순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일기를 쓰겠다면서 조금이라도 감정적인 단어만 쓰고 나면 수치스러워하고 쓴 것을 지우고 싶어 한다. 이렇게 일기와 행동의 괴리가 일어난 이유는 톨러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환경 보호라는 명분에 압도되어 순교만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톨러가 변기 닦는 장면을 보면 청결에 대해 강박적이기도 하다. 톨러가 잠자다가 깨어 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37:12), 이것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면 자주 토했던 것 같다. 이때 톨러는 토한 자국을 지우기 위해 변기를 청소하면서 세척제를 엄청나게 많이 쓴다. 변기에 세척제 한 통을 거의 다 들이 붓는다(32:12).

이런 장면을 참고하면, 톨러가 오염을 대하는 이런 행동 방식은 매우 강박적으로 보인다. 이것은 그가 자살 방법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톨러가 자살할 때 세척제를 먹는 것[12] 역시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환경 오염을 막으려는 의도와 연결된다.

그러나 톨러의 이런 선택이 지구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었을까? 자살의 명분이 되었던 환경 문제와는 상관없이 메리와의 결합을 상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면, 톨러의 자살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관객에게 혼란을 준다.

---

12) 영화에는 메리가 등장하여 컵을 떨어트리는 것으로 나오지만 메리가 사제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먹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Ⅲ. 고통 극복을 위한 일기 쓰기 방법 – CTFAR을 중심으로

1. CTFAR란 무엇인가

글쓰기가 고통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진실되게 표현하는 데서 일어난다. 글쓰기 치료 전문가 페니베이커(1997)는『털어놓기와 건강』에서 표현하기가 얼마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강조하고 있다. 쉬위(2019)는『일기 여행. 여성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신비한 여정』에서 여성들이 표현적 글쓰기로 일기를 쓰면서 치유되어 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박미라도『치유하는 글쓰기』(2008)와『모든 날 모든 순간, 내 마음의 기록법』(2021)을 통해서 표현적 글쓰기가 어떻게 치유 효과를 발휘하는지 설명한다.

실제 사례뿐 아니라 표현적 글쓰기의 효과를 소재로 하는 문학 작품도 있다. 워커(1992)의『컬러 퍼플』은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못했던 흑인 여성이 오직 일기 쓰기로 하느님에게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긍정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셀리는 일기를 쓰면서 현실의 고통과 마주하는 용기를 얻게 된다. 곽진아(2019, 106-110.)는 페니베이커의 글쓰기 치료 이론을 참고하여 주인공 씰리(문학동네 번역에서는 셀리로 표기)의 트라우마 서술 방식을 표현적 글쓰기라고 설명한다.

이승우의『오래된 일기』에도 털어놓기의 의미가 잘 표현되어 있다. 이 작품은 주인공이 아버지의 돈 훔친 것을 들킬까 봐 차라리 아버지가 죽었으면 바랐던 날 실제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사건을 다루고 있다. 박춘희(2013)는 이 작품을 분석하면서 주인공이 그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하여 소설을 쓴다는 명분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이들 사례는 일기 쓰기가 표현적 글쓰기의 대표적인 방법이고, 일기라는 표현적 글쓰기가 고통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표현적 글쓰기보다 인지적 접근을 중심으로 톨러 목사의 일기를 분석하고자 한다. 톨러가 처음에는 표현적 글쓰기를 하겠다고 시작했으나 다른 글쓰기로 나갔기 때문이다. 톨러의 일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CTFAR 방법이 유효하다.

고통은 실제 물리적 심리적 자극에서 오지만, 같은 자극이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강도와 의미는 다르다. 그것은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인지적 왜곡이 발생하여 자극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설기문이 『내 마음과 거리 두기』(2021, 57-66)에서 소개한 CTFAR은 Circumstance(환경), Thought(생각), Feeling(감정), Action(행동), Result(결과)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브룩 가스띠요가 개발한 이 방법은 일기를 쓸 때 감정 이전의 사고를 파악하여 쓰는 것이다. 이때 사고는 핵심 믿음에서 영향을 받은 자동적 사고일 가능성이 많다.[13)]

이렇게 사고와 감정을 연결하는 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인지치료에서는 1950년대부터[14)] 자동적 사고를 점검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여기서 자동적 사고란, 어떤 상황에서 미처 내가 통제할 틈 없이 바로 일어나는 생각을 말한다. 그런 자동적 사고가 강한 감정을 일으키고 그 감정이 잘못된 사고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Wills, 2011, 4장) 이렇게 일어나는 자동적 사고는 대부분 왜곡된 사고이다.(Leahy, 2019, 36.) 그러므로 이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생각과 감정을 구분하고, 생각이 감정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나는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불안'과 '좌절'이 생긴다.(Leahy, 2019, 23.) 불안과 좌절이라는 감정은 나는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왜곡된 자동적 사고는 핵심 믿음 때문에 일어난다. 자동적 사고의 기저에는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핵심 믿음과 중간 믿음(Beck, 2007, 153-208.)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실패할 것 같다'는 자동적 사고는 '나는 무능하다'라는 핵심 믿음에서 나왔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 추론은 내

---

13) 인터넷에서 혼자 점검해볼 수 있는 CTFAR 워크시트를 찾을 수 있다.
https://s3.amazonaws.com/kajabi-storefronts-production/sites/63814/themes/2193141/downloads/4rGUGYgbQYGDZ8CeI3df_Coaching_Models_Stephanie_Starr.pdf

14) 앨리스가 1950년대 중반 인지행동치료(CBT)를 크게 일으켰는데(번스, 2007, 7.), 현재는 합리적 정서치료이론(REBT)으로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Ellis · MacLaren, 2007)

담자와 면담에서 확정된다.

이때 자신의 핵심 믿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고통은 완화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을 수용하고 그 감정이 일어난 사고를 탐색하면, 감정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 이후 행동도 달라진다. 브룩 가스띠요의 CTFAR은 이런 인지치료기법의 연장선에 있다.

이제 톨러 목사의 일기를 CTFAR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로 분석하면서 톨러의 자동적 사고와 핵심 믿음을 확인할 것이다.

2. CTFAR로 톨러 목사의 일기 분석하기

이 장에서는 CTFAR로 톨러의 일기를 구성하여 톨러의 자동적 사고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인지 과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런 분석을 통해 톨러 목사의 감정이 어떤 생각 때문에 일어났는지 알아보고, 그 감정을 부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탐색해보면, 톨러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다.

톨러는 일기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생각과 감정을 다 썼는데, 두 가지를 언제나 다 쓴 것은 아니다. 그래도 비어 있는 부분은 앞뒤 맥락을 보고 추론으로 채울 수 있다.(Beck, 2007. 154.) 상황, 행동, 결과 역시 영화 줄거리를 참고하여 보충해보면 어느 정도 구성이 가능하다.

보통 일기를 쓸 때는 감정을 중심으로 쓴다. 톨러의 일기에도 기쁘다, 두렵다 등의 감정이 먼저 나온다. 그런데 그런 감정과 사고는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느낀 감정은 그 감정이 일어나게 한 자동적 사고가 있다. 강렬한 감정은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Wills, 2011, 90.)

톨러는 일요일에 '풍요로운 교회' 청년부 모임에 참석하여 그들에게 환영을 받았다고 쓰고 나서 곧 후회한다.(8:00) 톨러는 자기도 모르게 남들의 인정과 환대를 기뻐하는 것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날의 일기를 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 C : 일요일, 청년부 모임에 참석하여 환영을 받았다.
> T : (환영받은 것에 기뻐하는 것은 자만이다.)

F : 수치스럽다.

A : 자만이라는 단어를 지울 수 없으니 기도하기로 한다.

R : 12개월 동안 잘 쓸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다.

영화에서 T는 나오지 않는다. 실제로도 T는 포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너무나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톨러가 인식하고 있는 나머지 요소들을 통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환영받았다고 쓴 것은 그것에 기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수치스럽다고 쓰고 또 자만이라고 쓴다. 이것을 연결해보면, 환영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은 자만이고 자만하는 자신이 수치스럽다는 것이다. 이렇게 톨러가 수치심을 느끼는 이유는 환영받는 것에 기뻐하는 자신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15)]

누군가 나를 환영해줄 때 기분이 좋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톨러는 바로 스스로 자만이라고 평가하는 자동적 사고가 일어났고, 그 생각 때문에 수치스럽다는 감정이 일어났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 일어났기 때문에 12개월간 일기 쓰기를 잘할 수 있을까 의문을 품었던 것이다. 이런 인간적인 감정을 자만이라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톨러 사고의 핵심이다. 그 밑바닥에는 인간은 겸손해야 한다는 핵심 믿음이 자리잡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제 톨러가 자살 테러 조끼를 입은 행동까지 간 과정을 CTFAR 형식으로 압축해서 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C :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

T : 하느님의 창조가 위협받는다.

F : 끔찍하다. 화난다. 책임감을 느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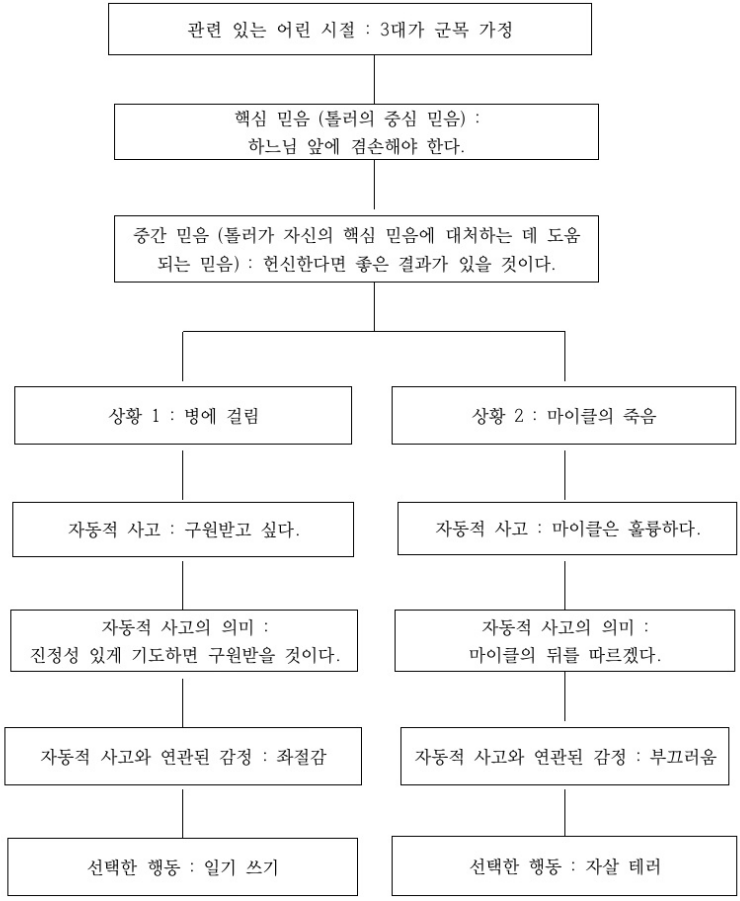
15) 그린버그(2021, 90-99.)가 주창한 정서중심치료에서는 1차 정서, 2차 정서, 도구적 정서 등 세 가지로 감정을 구분한다. 감정을 촉발시키는 사건을 만났을 때 바로 드는 순간적인 감정을 1차 정서라 하고, 그 감정을 회피하면서 생각이 개입하여 생기는 감정을 2차 정서라고 하며, 남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표현되는 조작적 감정을 도구적 정서라고 한다. 이 일기에서 톨러의 1차 정서는 기쁨이고 2차 정서는 수치심이다. 일기라서 도구적 정서까지는 표현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서를 중심으로 톨러를 이해할 수도 있다.

A :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바크 회장을 자살 폭탄 테러로 죽인다.

R : 자신도 죽고 교회도 파국을 맞는다.

이 과정을 인지 개념화 도표(Beck, 2007, 155-156)를 사용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16] 이런 인지개념화 도표를 사용하면 톨러의 선택 과정이 잘 드러난다.

<톨러의 인지 개념화 도표>



16) 참고문헌에는 중간 믿음 아래에 보상 전략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하였다.

처음 톨러가 일기 쓰기를 통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목사로 살아온 시간 동안 형성된 자동적 사고 때문이다. 이런 자동적 사고에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핵심 믿음이 자리잡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렇게 헌신하면 환경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중간 믿음까지 추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톨러의 이런 인지 과정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르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큰 병에 걸렸다는 느낌이 들면 무슨 병인지 궁금해하고 병원에 간다.

톨러 가족이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군목이었다는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병원에 가지 않고 일기로 기도하겠다는 이런 일련의 사고 과정은 기독교 문화에서 형성된 자동적 사고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고 누구나 이렇게 사고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후에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톨러 목사가 일기를 쓸 때 건강한 선택을 위해서는 어떤 사고 과정이 필요한지 대안을 찾아볼 것이다.

4. 고통 극복을 위한 CTFAR 다시 쓰기

톨러가 처음 일기를 쓸 때 다짐했던 것은 진실함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평소 생각 습관대로 자신의 감정을 기독교 신앙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하고, 솔직한 감정을 쓴 일기는 찢어버렸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톨러가 자신의 사고 과정을 알아챘다면, 그리고 그 사고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점검했더라면, 다른 감정, 다른 행동,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인지행동치료에서는 인지 과정에서 일어나는 왜곡된 사고를 교정하기 위해서 사고 기록지(Wills, 2011, 117.)를 쓴다. 사고 기록지의 항목은 1) 촉발자(상황, 사건), 2) 감정, 3)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 4) 자동적 사고를 지지하는 증거, 5) 지지하지 않는 증거, 5) 대안적인 균형적 사고, 6) 대안적 사고를 유지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 이루어진다. 이 기록지가 CTFAR과 다른 점은 감정을 앞에 쓰고 나중에 자동적 사고를 쓰는 것인데, 이것은 일기를 쓰는 사람이 먼

저 인식하는 순서대로 나열된 것이다. 실제로는 자동적 사고가 먼저 일어나서 감정이 일어난다.

여기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에는 낙인찍기, 파국화, 긍정성의 평가 절하, 이분법적 사고, 부정적 사고의 강조, 비난하기, 후회 성향 등 17가지 인지적 왜곡이 있다.(Leahy, 2019, 53.) 톨러에게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당위적 사고가 강하게 보인다.

톨러의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는 여러 대안적 사고를 통해서 교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1) 문제 상황에 대한 다른 해석, 2)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결과 예측, 3) 기분을 바꾸는 데 쓸모 있는 생각, 4) 내 생각이 사실일 때 효과적인 대처 방식에 대한 고려 5) 다른 사람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객관적 사고 등(Wills, 2011, 106)의 균형 있는 사고를 통해 건강하고 순기능적인 선택으로 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부 예배에 다녀온 날의 일기에서 생각을 수정하면 다음과 같이 감정과 행동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C : 일요일, 청년부 모임에 참석하여 환영을 받았다.
T′ : 청년부가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내가 하느님의 뜻을 잘 전하고 있구나.
F′ : 기쁘다.
A′ : 청년부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눈다.
R′ : 행복감이 늘어난다. 청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

여기서 톨러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청년들의 환대에 기뻐하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하는지 여부이다. 수용하지 못했다면,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자동적 사고를 점검하고 그 사고의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 일기를 쓸 때 이런 작업을 수행하면 자기 성찰에 큰 도움이 된다. 여기서 톨러는 겸손해야 한다는 당위적 사고에 갇혀 진정성 있게 일기를 쓰겠다는 처음 결심과 모순되는 방향으로 나갔다.

결국 톨러는 철조망을 몸에 감고[17] 세척제를 먹는다. 그러나 그런다고 환

17) 자기 몸에 철조망을 두르는 것은 앞서 토끼가 철조망에 걸려 죽은 장면과 관련이 있다. 동

경 오염이 개선되고 지구 온난화가 늦춰지지는 않는다. 지구가 위험하다는 내 생각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응을 찾는 것이 합리적 행동이다.

세상의 구원을 목적으로 폭력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받기도 어렵고 정당성을 갖기도 어렵다. 객관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고로 수정하여 CTFAR 원리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C :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
T′ : 앞으로 인류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F′ : 두렵다. 끔찍하다.
A′ : 예배 때마다 환경 문제를 다룬다. 바크를 자주 만나 환경 오염 개선을 촉구한다.
R′: 환경 오염이 조금 개선된다.

톨러가 자신의 자동적 사고를 점검할 수 있었다면 자살이라는 파국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인지 과정에 대한 성찰은 건강한 선택을 위해 필요한 활동이다.

Ⅳ. 나가는 말

이상으로 톨러의 일기를 CTFAR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하여 톨러의 사고가 자살 행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고, 그가 어떻게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는지 확인해보았다. 톨러는 병에 걸리자 일기 쓰기라는 형식으로 기도하며 구원을 실험하려고 하다가 자살 테러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은 왜곡된 자동적 사고 때문임

물이 인간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으니 자신도 속죄의 의미로 철조망을 두른 것이다. 그것은 순교자의 고난을 스스로 겪겠다는 상징적 의미이기도 하다.

을 발견하였다.

이런 추적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기를 쓰는 과정에서 감정을 촉발하는 사고가 무엇인지 명료화하고 그 사고의 타당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톨러의 경우, 할아버지 대부터 이어져 온 군목 가정에서 자라면서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당위적 사고에서 나왔음을 추론할 수 있다.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것도 당위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신의 자동적 사고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먼저 세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사고 기록지의 순서에서 보듯이 자동적 사고는 너무나 빨리 지나가지만 감정은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정 관찰을 통해 역으로 자신의 자동적 사고를 역추적하여 CTFAR을 완성한다.

톨러는 일기를 쓰면서 수치스럽다, 자만으로 가득 차있다는 강한 감정을 느낀다.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핵심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감정을 일으키는 사고를 찾아가고 그 타당성을 숙고하는 일기를 쓰기는 쉽지 않다. 감정에 매몰되어 감정을 일으키는 사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 생각과 감정을 구분하는 연습만으로도 마음의 고통이 완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Leahy, 2019, 48-49.)[18] CTFAR 원리로 일기 쓰기는 자신의 자동적 사고를 파악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다.

자기 인식이라는 자기 객관화 능력은 혼자서 얻기 어렵다. 공동체 속에서 꾸준히 학습하고 연습해야 얻어진다. 그러고 보면 톨러의 파국에는 공동체 친교가 없었던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19]

인간의 자동적 사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많다. 그러나 그것을 모두 파헤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도 현재 자신의 사고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타당

---

18) 어떻게 생각이 감정을 만드는가, A(사건)-B(사고)-C(감정) 기법을 연습하는 양식을 채우다 보면 자신의 자동적 사고를 알게 된다.

19) 풍요로운 교회 담임 목사인 재퍼슨은 톨러에게 재활원에 가거나 봉사 활동을 하라고 조언하지만, 톨러는 이를 무시한다. (1:37:35)

한지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은 많이 완화되고 극복될 수 있다. 적절한 일기 쓰기 교육은 자기 성찰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대학의 교양교육은 자기 인지 과정에 대한 점검 기회가 부족한 편이므로 이를 보완하는 교과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곽진아, 2019,「『컬러 퍼플』(The color purple) : 자기 고백적 글쓰기를 통한 치유의 서사」,『영어권문화연구』 제12권 1호, 영어권문화연구소, 105-127.

그린버그, 레슬리 S., 윤명희 정은미 천성문 옮김, 2021,『정서중심치료』, 학지사.

김춘경, 2016,『상담학 사전』 3권, 학지사.

박춘희, 2013,「고백의 서사와 이야기하기의 욕망-이승우의「오래된 일기」와「전기수 이야기」를 중심으로」,『한국문예창작』 제12권 제2호, 한국문예창작학회, 115-138.

번스, 데이비드, 차익종 이미옥 옮김, 2007,『필링 굿』, 아름드리미디어.

설기문, 2021,『내 마음과 거리 두기』, 좋은습관연구소.

슈레이더, 폴, 2017,「퍼스트 리폼드」, 113분, 미국.

쉬위, 말린, 김창호 옮김, 2019,『일기 여행, 여성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신비한 여정』, 산지니.

우혜경, 2019,「우혜경 평론가의 <퍼스트 리폼드>, 공존 불가능한 두 세계 사이에 선 영화」,『씨네21』 1202호, 70-71.

워커, 앨리스, 고정아 옮김, 1992,『컬러 퍼플』, 문학동네.

유영희, 2020,「시민성 함양에 필요한 '묘사 글쓰기'」,『교양교육과 시민』 제2호, 숙명여자대학교교양교육연구소, 105-130.

이승우, 2009,『오래된 일기』, 창비.

이경란, 2020,「서평 : 일기 여행, 자기 긍정의 글쓰기」,『독서치료연구』 제12권, 한국독서치료학회, 129-134.

페니베이커, 제임스 W., 김종한 역, 1999,『털어놓기와 건강』, 학지사.

페니베이커, 제임스 W., 이봉희 역, 2007,『글쓰기 치료』, 학지사.

페니베이커, 제임스 W., & 에반스, 존 F., 이봉희 역, 2017,『표현적 글쓰기』, 엑스북스.

허문영, 2019,「절멸을 우회한 사랑」,『FILO』 NO.8, 56-67.

Adams, Kathleen, 강은주 이봉희 역, 2006a,『저널치료』, 학지사.

Adams, Kathleen 강은주 이봉희 이영식 역, 2006b,『저널치료의 실제』, 학지사.

Beck, Judith S. 최영희 이정흠 역, 2007,『인지 치료 : 이론과 실제』, 하나의학사.

Ellis, Albert & MacLaren, Catharine , 서수균, 김윤희 공역, 2007,『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학지사.
Leahy, L. Robert, 박경애 조현주 김종남 김희수 최승미 백지은 역, 2019,『인지치료 기법 제2판』, 시그마프레스.
Wills, Frank, 박의순 이동숙 옮김, 2011,『인지행동 상담과 심리치료 기법』, 시그마프레스.
인지행동치료 역사 https://namu.wiki/w/%EC%9D%B8%EC%A7%80%ED%96%89%EB%8F%99%EC%B9%98%EB%A3%8C (검색일 2022.06.20.)
CTFAR 방법 안내 https://amytwiggs.com/ctfar-the-magic-method/ (검색일: 2021. 11.04.)
CTFAR 워크시트https://s3.amazonaws.com/kajabi-storefronts-production/sites/63814/themes/2193141/downloads/4rGUGYgbQYGDZ8CeI3df_Coaching_Models_Stephanie_Starr.pdf (검색일 : 2022. 06.20)

Abstract

Study on Journal Writing for Overcoming Mind Pain

- Focusing on pastor Toller's journal in film ‘first reformed’ -

Yu, YoungHee

(Independent researcher)

Keeping a journal is a popular method for Self-reflection. Self-reflection begins with objectively understanding one's thoughts and emotions. Therefore, the effect of self-reflection varies depending on how you keep a diary. Pastor Toller, the protagonist of the movie “First Reformed,” decides to keep a diary after realizing that he is seriously ill. However, Toller attempts suicide terrorism to prevent global warming. Toller's choice was because he could not objectively reflect on his emotions and thoughts when writing a diary.

In this paper, I propose to use CTFAR developed by Brook Gastillo as a journal writing method for self-objectification. This method emphasizes exploring your thoughts as the cause of your emotions. This is consistent with cognitive therapy techniques in counseling psychology. In cognitive therapy, people think that inappropriate emotions and behaviors are triggered by automatic thoughts that occur instantaneously in problem situations, and it is suggested to check automatic thoughts to get good results. Journal writing is very effective as a way to discover which thoughts caused emotions and check the validity of those thoughts. Currently, liberal arts education at universities lacks opportunities to check self-cognition processes. Proper journal writing training will help develop self-reflection skills.

Keyword ● liberal_arts_education, journal, cognitive_theraphy_techniques Brooke_Castillo, CTFAR

▌논문투고일 : 2022. 6. 12. ▌심사완료일 : 2022. 6. 18. ▌게재확정일 : 2022. 6. 26.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본 인문교육의 중요성
: 엘리자베스 1세의 성공과 휴머니즘 교육

허구생*

I. 엘리자베스, 여왕이 되기까지
II. 잉글랜드의 휴머니즘과 엘리자베스의 교육
III. 엘리자베스의 난제들
IV. 실용적 휴머니즘에 입각한 엘리자베스의 문제 해결

국문요약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재위: 1558~1603)는 국민적 갈등과 분열로 위기에 놓여있던 나라를 구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발전하는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녀가 잉글랜드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군주라는 취약점에 더해, 가톨릭과 신교 사이의 종교 갈등 등 숱한 난제들을 헤치고 성공적인 업적을 쌓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르네상스 휴머니즘을 중심으로 하는 실용적인 정책사상, 상황을 기민하게 판단하고 최선의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정치적 사려(political prudence)', 그리고 국민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탁월한 연설 능력이 있었다.

그녀가 선택한 종교적 '중도(via-media; middle way)' 정책은 가톨릭과 신교의 극단적 주장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민감한 부분은 절충의 여지를 남겨둔

* 前 서강대 국제문화교육원장, 역사학 박사, hurz001@hanmail.net

종교적 타협책이었다. 이것은 윤리적 타당성을 따지는 중용과는 달리, 단순하게 양 극단의 가운데를 질러 중간 영역을 설정한 것으로서 이는 상당 부분 엘리자베스의 창안이었다. 또한 엘리자베스는 휴머니즘을 중심으로 당시 엘리트 계층에게 확산되고 있던 커먼웰스 공동체론을 십분 활용하면서 자신을 그 공동체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다. 전장에서, 대학에서, 그리고 보다 빈번하게는 의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서 엘리자베스는 자신을 신과 인간, 인간과 자연을 매개하는 우주론적 존재이며, 공동체의 유일한 통합자임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각인시켰다. 특히 자신과 신민들 사이의 관계를 '사랑의 연대'로 규정함으로써, 신민들의 자발적 협력과 동의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 모든 성공의 배경에는 그녀가 받은 르네상스 휴머니즘에 입각한 교육이 있었다. 그녀를 직접 가르쳤던 윌리엄 그린덜과 로저 에스컴, 그리고 존 체크, 리처드 콕스, 그리고 토머스 스미스 등은 당대의 일급 학자들이었으며, 실용주의와 법의 상대주의, 그리고 공동체론을 공유한 휴머니스트들이었다. 특히, 어린 여성에게 대중연설의 기술을 가르친 그들의 선견지명은 가히 발군이라 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엘리자베스 1세, 엘리자베스의 인문교육, 르네상스 휴머니즘, 커먼웰스, 엘리자베스의 대중연설

I. 엘리자베스, 여왕이 되기까지

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서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재위 1558~1603)를 지난 천년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빼어났던 정치 지도자로 선정했다.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로 붕괴 직전에 있던 나라를 구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는 것이다. 국민통합, 균형재정, 평화정책이 그녀의 성공적 통치를 이끈 핵심적 정책기조였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엘리자베스는 잉글랜드 역사에서 종교개혁이라는 대사건을 가져오게 한 헨리 8세의 두 번째 부인 앤 불린의 딸이다. 1533년 6월 앤이 잉글랜드의 왕비로 즉위했을 때 그녀는 이미 임신 중이었다. 앤은 9월 7일 아이를 출산했는데, 헨리 입장에서는 실망스럽게도 아들이 아닌 딸이었다. 헨리는 그 딸에게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을 뿐, 아무런 애정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리고 3년 뒤, 앤은 간통 및 대역죄로 체포되었고 결국은 단두대의 이슬이 되었다. 그녀의 간통 혐의가 사실인지, 당쟁이 만들어낸 음모였을 뿐이었는지, 지금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앤에게 실망한 헨리의 마음을 읽은 정적들의 음모가 개입되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어머니 앤 불린이 대역죄로 처형당하고 졸지에 사생아 신세가 됐을 때, 그녀의 나이 겨우 세 살이었다.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붉은 머리카락을 가졌던 소녀 엘리자베스는 보호자를 절실하게 필요로 했다. 마침내 그녀의 마지막 계모였던 캐서린 파가 그녀를 돌보기 시작한 것은 1543년이었는데, 그때 엘리자베스의 나이는 열 살이었다. 사생아 신세였던 메리와 엘리자베스를 다시 왕위계승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도록 헨리를 설득한 사람도 캐서린 파였다. 이것은 1544년 의회 입법으로 공식화되었다. 캐서린은 첼시에 있던 그녀의 거처로 엘리자베스를 불러들였고, 엘리자베스는 자신을 인정하고 심지어 사랑해 주는 그녀의 따뜻한 배려 속에서 잠시나마 긴장을 풀 수 있었다.

아무리 심술궂은 성격에 피부경화증마저 앓고 있던 부친이라지만, 그가 캐서린 왕비의 무릎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쉬고 있는 동안만큼은 엘리자베스에게 미소를 보여주곤 했다. 이제 그곳에서 엘리자베스는 친모의 악덕을 상기시켜주는 존재가 아니라 덕성을 내뿜는 존재로 탈바꿈했다. 예컨대, 1545년, 열두 살의 엘리자베스는 캐서린 소유의 《기도와 명상》이라는 전범서를 부친이 보는 앞에서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라틴어로 각각 번역하는 재주를 선보였다. 이렇게 해서 부친의 호감을 회복한데 힘입어, 그녀는

자신과 불과 세 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 에드워드와도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 1547년 1월, 헨리가 죽고 이 소식이 이들 남매에게 전해졌을 때, 에드워드는 심신을 가누지 못하고 이복 누나에게 안겨서 흐느끼며 울었다. 또한 그들은 같은 개인교사들로부터 배웠다. 높은 학식을 갖춘 캠브리지 대학 휴머니스트 존 체크도 그 중 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강의는 여성은 경박스럽다는 따위의 고정관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었다.[1)]

비교적 사이가 좋았던 에드워드가 왕위에 오르면서 엘리자베스의 삶은 어느 정도 희망이 보였다. 그러나 에드워드 6세가 어린 나이에 죽고 1553년 이복언니 메리가 왕위에 등극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다. 메리 입장에서 볼 때, 이혼의 멍에를 쓰고 쓸쓸한 죽음을 맞은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 원인제공자인 앤 불린의 딸을 좋아할 수가 없었던 것은 당연했다. 더구나 가톨릭 복원을 필생의 과업으로 생각하던 메리가 후사 없이 죽음을 맞게 될 상황에 이르자, 그녀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다. 급기야 런던탑에 갇히게 된 엘리자베스는 무릎 꿇고 목숨을 구걸해야 했다. 메리가 죽고 엘리자베스가 기적처럼 왕위에 올랐을 때, 그녀의 나이 스물여섯이었다.

1558년 가을 무렵, 메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부풀어 오른 배가 태아가 아니라 종양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단으로 단죄된 사람들은 여전히 연기 속에서 불타고 있었지만, 엘리자베스가 살고 있는 하트퍼드셔의 해트필드 하우스로 가는 길은 그녀를 향한 충성 경쟁에서 남보다 앞서려는 잉글랜드 귀족들로 인해서 분주했다. 인파에 섞여서 엘리자베스를 만나려고 그곳으로 간 스페인 대사 페리아 백작은 튜더 가(家) 두 이복 자매의 너무나 다른 성격에 당황스러워 했다. '그녀는 매우 자만심이 강하고 영리한 여성이다. 그녀는 자신의 부친이 일을 처리하던 방식을 철저하게 교육 받았음에 틀림없다. 나는 그녀가 종교문제에 있어서 비우호적일까 매우 두렵다.…그녀의 편에 서기 위해 무덤에서 소생하여 즐겁게 일어난 자들은 이 왕국 전체를 통틀어 모두 이단 아니면 반역자들이다.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지

1) Simon Schama, *A History of Britain I: At the Edge of the World? 3000BC-AD1603* (BBC, 2000), pp.280-281.

배당하지 않을 각오이다.'

1558년 11월 17일, 런던으로부터 전령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소식을 가지고 도착했다. 전해내려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오래 된 오크나무 옆에 서있거나 혹은 앉아 있다가 언니의 죽음을 전해들은 엘리자베스는 메리의 손가락에서 빼낸 반지를 받아서 자신의 손가락에 끼었다고 한다. 그리고는 나무 밑에 무릎을 꿇고 시편 118편의 한 절을 라틴어로 읊었다고 한다.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오, 우리 눈에 놀랍도다.(A domino factum est mirabile in oculis nostris.)"[2)]

그녀가 헤쳐 나가야 할 난제는 하나, 둘이 아니었다. 스페인의 펠리페 2세와 잉글랜드를 공동으로 통치했던 언니 메리와는 달리 엘리자베스는 사실상 잉글랜드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군주였다. 여성 군주가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해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정의된 적이 없었다. 게다가 중세와 달리 군주가 왕국 전체를 직접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에 걸맞은 조세권도 가지지 못했다. 따라서 직업적 관료제도는 물론, 정책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경찰도, 상비군도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종교였다. 루터와 칼뱅 등이 개혁의 불을 지른 이후 종교문제는 유럽의 그 어느 군주도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중의 난제였다. 그녀가 이 모든 난관을 뚫고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어디 있었을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녀가 받은 교육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다.

II. 잉글랜드의 휴머니즘과 엘리자베스의 교육

1) 기독교적 휴머니즘(도덕론적 휴머니즘) vs. 실용적 휴머니즘

한스 바론은 이탈리아의 휴머니즘 운동을 두 단계로 구별했다. 그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는 문학 및 학문 운동이었고, 두 번째 단계는 시민적, 정치적

2) Simon Schama, *A History of Britain I*, p.286.

운동이었다. 후자가 정치적 참여를 시민의 당연한 의무로 간주하는 '시민적(civic) 휴머니즘'이다. 15세기 피렌체를 중심으로 활동한 휴머니스트들은 교육과 학문의 목적이 훌륭한 시민을 육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데에 있다고 믿었다. 역사학, 정치학, 수사학 등이 학문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도 이 시민적 휴머니즘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 학자들 중에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을 공부하되, 그 목적이 현실 사회를 개혁하는 데 있었을 경우, 그들의 학문을 가리켜 르네상스 휴머니즘이라 부른다. 고전 공부를 통해 현실을 보고, 자신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요체였다. 정치학이나 역사학은 정치적으로 성숙한 시민이 가져야 할 통찰력을 기르는 필수 학문이었고 수사학은 자신의 신념과 주장을 효과적으로 펼치고 다른 동료 시민들을 설득시킴으로써 사회개혁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게 도와주는 수단이었다.

그런데 이렇듯 시민적 성격을 가지는 이탈리아 휴머니즘은 알프스를 넘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성격이 변화하게 되었다. 이른바 북방 휴머니즘 또는 기독교적 휴머니즘이다. 북방 휴머니즘은 인간의 내면적 덕성 함양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예수를 내면적 덕성이 최고 경지에 달한 지고의 모델로 삼았기에 기독교적 휴머니즘이라고 부른다. 에라스무스와 후안 비베스, 그리고 토머스 모어 등이 주도한 기독교적 휴머니즘은 교육과 학문을 통해 개별 인간의 덕성을 함양시키면 사회는 저절로 더 좋은 사회로 이행하게 된다고 믿었다. 이들은 교회의 개혁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들은 현실의 교회가 기독교 본래의 정신에서 많이 벗어나 일종의 타락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으며, 성직자들이 자성하여 진정한 교회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16세기 초 영국의 사회개혁을 주도한 것은 바로 이 기독교적 휴머니즘이었다.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은 많은 잉글랜드의 휴머니스트들은 제도적,

법적 개혁 등 어떤 외형적 변화보다는 사람들 개개인의 정신 내부에 덕성을 함양시키는 방법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를 위해 군주와 지배계층, 그리고 교회가 도덕적 덕성에서 우러나오는 행위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토머스 엘리엇 등이 덕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덕치(virtuous rulership)를 실현하기 위해 군주가 좋은 도덕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3)]

그런데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에서 95개 논제를 제시하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내거는 순간, 기독교적 휴머니스트 그룹의 동질성이 깨지기 시작했고, 잉글랜드에서는 1530년대 초반 국왕 헨리 8세의 이혼 문제가 첨예한 논란을 일으키면서 결과적으로 로마 교회와 결별하게 되자, 기독교적 휴머니즘은 운동의 추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루터 이후 휴머니스트라기보다는 가톨릭 옹호의 선봉에 섰던 모어는 목숨을 잃었고, 엘리자베스의 이복 언니 메리의 교육을 맡았던 비베스는 헨리 8세의 이혼에 반대했다가 모든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했다. 그런데 이들을 대신해서 등장한 다른 성격의 휴머니스트 그룹이 있었다.

토머스 스타키, 리처드 모리슨, 토머스 스미스 등의 차세대 휴머니스트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개혁관은 에라스무스 식의 도덕적 절대주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이들은 인간의 본성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감안한 정책이 사회 개혁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즉 적절하고 효과적인 법의 운용과 정부 주도의 사회제도 재확립 노력이 보다 긴요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들 젊은 세대 휴머니스트들의 새로운 시각은 비교적 실용적이고 유동적인 정책 대안의 제시로 나타났다. 사실상 16세기 잉글랜드의 모든 개혁이 의회 입법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법에 의해 인간 본성을 조절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들의 생각이 도덕론적 입장에 섰던 앞 세대 휴머니스트들에 비해 정책결정과정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3) Thomas Elyot, *The Book named Governor*, ed. with introduction by S. E. Lehmberg (London, 1962), pp.2-5 *et passim*.

이들 실용론적 휴머니스트들의 공통점은 개인의 사적 이익보다 공동선의 증진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른바 '커먼웰스'사상이다. 커먼웰스라는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 사이의 상호 필요성과 의존성에 의해 유기체적으로 결합되었으므로[4]의 공동선의 실행이 전제되어야만 그 존재 목적이 성립된다는 생각이었다. 이들은 무분별한 개인이익의 추구는 사회계층간의 조화를 깨뜨려 커먼웰스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무분별한 개인이익의 추구를 통제하기 위해 정부가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커먼웰스 사상에 의하면 통치자의 기본 책무는 바로 사회 전 구성원이 각자의 의무를 다하게 독려하고 각 구성원간의 협력을 확보함으로써 공동선을 증진하는 것이었다.[5] 이들은 의회입법과 정부의 강제적 공권력을 수단으로 개혁을 실현해야 된다고 믿었으며, 법의 본질적 가치를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했다. 또한 법이 사람의 자연적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변화하는 사회 조건에 맞도록 늘 조정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들은 법의 상대적 측면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인간본성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또한 법이 사회개혁의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6]

이들은 또한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마키아벨리적인 성향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었다. 잉글랜드의 휴머니스트 공동체에서 마키아벨리의 중심 개념 중 하나인 '정치적 사려(political prudence)'가 처음에는 비판과 경멸의 대상

---

4) 이러한 사회 각 구성원간의 유기체적 관련성과 상호의존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신체의 비유(body analogy)'가 자주 사용되었다. 공동선을 외면하고 자신의 사적 이익에만 집착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과 빈민 구제의 당위성 설득에 자주 사용되었다. 이 신체의 비유는 원래 중세 잉글랜드와 유럽 각국에서 중세의 계급질서를 정당화하는 수사로서 가끔 사용되었던 것인데, 16세기 잉글랜드에서는 왕권행사의 정당성과 책임론을 뒷받침하였다.

5) Thomas Starkey, *A Dialogue between Cardinal Pole and Thomas Lupset*, ed. by J. M. Cowper, E.E.T.S. (London, 1878), pp.48, 56, 58; Elyot, *Governor*, p.1; *Tudor Economic Documents*, vol.1, p.44.

6) 스키너는 스타키의 이러한 법 존중주의가 이탈리아 휴머니스트 로렌쪼 발라(Lorenzo Valla)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Skinner, *Foundations*, pp.206-208.

이었으나 점차 군주가 갖추어야 할 자질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특히 1530년대의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 '공동선 보호'의 차원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할 것이다.[7)]

엘리자베스의 교육을 맡게 된 휴머니스트 그룹은 바로 이 실용론적 휴머니스트들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었고, 보다 특정해서 말한다면 '캠브리지 그룹'이었다. 캠브리지 대학의 세인트 존스 칼리지에서 각별한 사제, 동료 지간으로 엮여있던 존 체크, 로저 에스컴, 윌리엄 그린덜 등이 그들이었으며, 이밖에 리처드 콕스, 토머스 스미스, 니컬러스 베이컨 등도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스미스, 체크, 에스컴은 차례로 캠브리지 대학의 대표 웅변가를 역임한 사람들로서 이들의 수사학적 전통은 엘리자베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엘리자베스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열한 살 이전의 엘리자베스가 정확하게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녀의 교육에 대한 첫 기록은 1544년 통과된 왕위계승법에 의해 지위가 복원된 이후에 나온다. 그녀는 당시 열한 살이었는데, 이때 이미 이탈리아어와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의 이복동생 에드워드(후일의 에드워드 6세)가 늦은 여섯 살에 라틴어를 익히기 시작했고, 열 살 때 프랑스어를 공부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엘리자베스의 경우에도 여섯 살 무렵부터 라틴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544년 7월 당시 열한 살의 엘리자베스가 당시 부왕의 왕비 캐서린 파에게 쓴 편지는 현존하는 그녀의 서간문 중 가장 오래된 것인데, 이는 이탈리아어로 쓴 것이었다. 그해 연말 엘리자베스는 나바르의 마르게리트가 쓴 시집 《죄많은 영혼의 거울》을 번역하고 직접 표지를 장식하여 왕비에게 새해 선

---

7) Quentin Skinner,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pp.250-251; William G. Zeeveld, *Foundations of Tudor Policy* (Harvard, 1948), p.14.

물로 바쳤다. 1544년은 엘리자베스의 학업이 캠브리지 대학의 휴머니스트(인문학자) 그룹과 공식적으로 연결된 해이기도 했다.

존 체크, 리처드 콕스, 로저 에스컴, 윌리엄 그린덜이 그들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들은 캠브리지 대학의 세인트 존스 칼리지의 사제 관계 또는 선후배 관계로 친밀하게 엮여 있었다. 엘리자베스의 개인교사로 가장 먼저 임명된 사람은 그리스 고전 전공학자였던 그린덜이었다. 그는 에드워드 왕자의 교육을 맡고 있던 리처드 콕스와 존 체크를 돕기 위해 궁정으로 초빙되었다가 콕스의 권유로 엘리자베스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에스컴의 추천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린덜은 에스컴의 캠브리지 대학 제자로서 비교적 이른 나이에 그리스와 라틴의 고전을 익혔으며, 에스컴은 그의 재능과 품성을 무척이나 아꼈다. 그린덜은 약 3년간에 걸쳐서 엘리자베스에게 그리스어, 라틴어 등을 가르쳤다. 프랑스어, 이탈리어, 스페인어 등의 교육은 캐서린 샴페노언 부인이 맡았다. 에스컴은 그리스어와 라틴어 영역에서 엘리자베스가 얻은 탄탄한 학문적 기초를 평가하면서 그것이 그린덜의 열성적인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을 배운 그녀[엘리자베스]의 이해력과 그것을 가르친 그의 근면 중 어느 것을 더 높이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8] 에스컴은 또한 체크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녀가 만약 그린덜 밑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학문에 정진한다면 그녀의 라틴 및 그리스 공부의 향후 성취가 참으로 엄청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린덜은 1548년 1월 역병으로 사망했다.

엘리자베스의 후견인이었던 전 왕비 캐서린 파와 그녀의 새 남편 토머스 시머는 프랜시스 골드스미스를 그린덜의 후임으로 밀었지만, 당사자인 엘리자베스는 에스컴을 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꿋꿋하게 밀고 나갔고 결국에는 에스컴을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다. 그녀는 이미 그린덜을 통해 에스컴을 잘 알고 있었고 라틴어로 서신을 교환하던 사이였다.[9]

에스컴은 어쩌다 궁정에서 한 자리를 차지한 교수 나부랭이가 아니라, 당

---

8) *The Whole Works of Roger Ascham*, I, Part 2, Letter CXVII, pp.271-274.

9) Lawrence Ryan, *Roger Ascham*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3), p.102.

대의 학문과 교육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는 고전 공부를 통해 사람들이 뛰어난 판단력과 덕스러운 행동을 익히게 된다고 믿은 일급의 고전 학자였다. 그는 엘리자베스가 매우 아름다운 서체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든 장본인으로서 일급의 서예가였다. 또한 그는 라틴어 텍스트를 영어로 번역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한 후 학생들로 하여금 그것을 다시 라틴어로 번역하게 하는 이른바, '이중번역'이라는 새로운 교수 방법론을 최초로 도입하여 엄격하게 적용한 사람이었다. 여기에는 강압에 의해 습득한 기억은 빨리 잊히고 오랜 노력 끝에 얻은 기억은 오래 간다는 그의 교육 심리학적 이론이 담겨 있었다. 게다가 에스컴은 캠브리지 대학의 대표 연설자이기도 했는데, 그가 엘리자베스에게 키케로의《웅변가에 관하여》라는 책에 대하여 얘기한 것은 그의 이러한 면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사실, 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성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지식영역에 속하는 대중연설의 기술을 십대 소녀에게 가르치려한 것은 참으로 별난 생각이었다. 다음은 키케로가 쓴《웅변가에 관하여》의 한 대목이다. 엘리자베스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하게 될 때 한 인간으로서 권위 있게 그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것이 웅변가이다. 그의 임무는 해이된 국민을 각성시키고 무절제한 격정을 억제시키는 데에 있다. …… 웅변가보다 더 강력히 德行을 권장해 줄 수 있는 자가 그 누구이며, 그보다 더 열렬히 악의 길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자가 그 누구인가? 누가 그보다 더 준열하게 사악한 자를 탄핵할 수 있겠으며 누가 그보다 더욱 고상하게 값있는 인간을 예찬할 수 있겠는가? 그의 규탄보다 더욱 강하게 무도한 욕망을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이 그 무엇이며 그의 즐거운 말보다 더 부드럽게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그 무엇이겠는가?[10]

---

10) Cicero, *De Oratore*, II, 35, tr. E. W. Sutton, (Cambridge, Mass: The Loeb Classical Library, 1967), p.223. 김영한,《르네상스 휴머니즘과 유토피아니즘》(탐구당, 1989), p.102에서 재인용.

에스컴은 1548년 초에서 1549년 말, 또는 1550년 초까지 엘리자베스의 학업을 지도했다. 약 2년간에 걸친 그 시절 엘리자베스의 학업 시간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오전에는 그리스 고전과 그리스어 성경을 읽었으며, 이소크라테스, 소포클레스, 그리고 데모스테네스 등 라틴어 고전을 읽었다. 오후에는 키케로와 리비우스의 저작을 읽었는데, 키케로의 경우 거의 모든 것을 읽었고, 리비우스의 것도 상당 부분을 읽었다. 그 외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 공부를 계속했고,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스페인어 공부도 이어 나갔다. 로저 에스컴은 그녀에 대해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 그녀의 놀라운 자질은 자연의 선물일까, 아니면 행운의 여신이 준 선물일지 말하기 어렵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낸 모든 찬사가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다. 즉 아름다움, 품격, 사리분별력, 그리고 근면성이 그것이다. 그녀는 이제 열여섯 번째 생일을 막 지났는데, 그녀의 위엄과 온화함은 그녀의 나이와 계급에서 발군이라 할 수 있다. 진정한 종교와 학문에 대한 열정 또한 그러하다. 그녀의 머리에는 여성스러운 약점이 없고, 그녀의 인내심은 남자들의 그것과 동일하며, 그녀의 기억력은 사물들을 재빨리 파악하여 오랫동안 담아놓는다. 그녀는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를 마치 영어를 말하듯 했을 뿐 아니라, 가끔은 내게 유창한 라틴어로 선뜻 말을 걸어왔으며 중급수준의 그리스어로도 얘기하곤 했다. 그녀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글을 쓸 때면, 그녀의 필체는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음악에도 재능이 있으며, 그만큼 또 즐긴다. 장식을 할 때면 그녀는 현람함보다는 우아함을 추구한다.[11]

에스컴은 또한 그녀의 글쓰기와 관련해서, 담백하게 논리를 세우고 멋지게 명료성을 확보하면서 주제를 발전시켜나간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적당한 수준의 메타포를 좋아하며, 또한 반대되는 것들을 비교하고 이들을 한데 잘 묶어서 서로를 절묘하게 대비시키는 것을 잘했다. 사탕발림의 구절들 속에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모호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

11) J. E. Neale, *Queen Elizabeth* (London, 1934), p.26.

을 언어적 탁월함 속에서 포장하는 재주가 있었다.[12)]

에스컴은 그가 공식적으로 공주의 개인교사직을 사임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엘리자베스의 학문에 관여했다. 에스컴에 따르면, 그는 1562년 한 해 동안 매일 그리스 고전과 라틴어(로마) 고전을 읽었는데, 그들이 하루에 읽은 양이 보통의 일반 성직자들이 일주일 동안 읽는 양보다 더 많았다고 한다.[13)]

III. 엘리자베스의 난제들

엘리자베스는 아마도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위태롭고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왕위에 올랐으며, 그녀의 생존이 확보되기까지에는 그로부터 최소한 십여 년의 세월을 더 필요로 하였다. 어느 역사가는 엘리자베스 재위초기의 역사(1558~1572)를 '생사를 결정하는 시험기'("the testing time of the regime- whether it was to live or die")로 규정하였지만,[14)] 이것은 어디까지나 역사의 경과를 이미 알고 있는 후세 사람들의 판단일 뿐 역사의 당사자인 엘리자베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시험기는 상당기간 더 이어졌을 것이다.

어쨌건 그 시험기동안 역사는 극히 불투명하였다. 첫 번째 문제는 그녀가 잉글랜드 최초의 여성 군주였다는 점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그보다 앞서 여왕의 자리에 있었던 이복 언니 메리는 남편인 스페인의 펠리페 2세와 함께 잉글랜드의 공동 군주로 재위했으므로 엘리자베스와는 처지가 달랐다. 여왕이 가지는 왕권의 성격이 무엇인지, 권리 행사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결혼할 경우에는 배우자와 권력을 어떻게 분점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확립된 관행도, 어떠한 선례도 없었다. 이것은 엘리자베스의 결혼이, 의도한 것이건 그렇지 않건, 지연됨에 따라 엄청난 정국의 불안정

12) Lacey Baldwin Smith, *Elizabeth Tudor: Portrait of a Queen* (Boston, 1975), pp.29-30.
13) J. E. Neale, *Queen Elizabeth*, pp.23-26.
14) Wallace T. MacCaffrey, *The Shaping of the Elizabethan Regime: Elizabethan Politics, 1558-1572*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8), p.4.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 문제는 그녀를 지지했던 개신교들에게 있어서도 하나의 '불운'으로 인식되었다. 그들에게 여성군주란 좋게 말한다 해도 나랏일이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이고, 좋게 말한다 해도 남녀 간의 역할이 전도되었다는 의미였다. 여성을 '약한 배(the weaker vessel)에 비유하는 상투적인 영어 묘사는 1526년 발간된 윌리엄 틴들의 영어 성경에 등장한 이후, 남성에 대한 여성의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신교적 가족질서를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용어가 되었다. 왕국도 결국은 가정의 확대판이었다. 여성에 의해 지배되는 왕국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반전(反轉)된 상태였다.

스코틀랜드 칼뱅주의의 핵심적 지도자였던 존 녹스는 여성들의 통치는 '괴물을 만들어내는 혐오스러운 존재(monstriferous abomination)'일 뿐이었다. "자연은, 내가 말하건대, [여자들을] 더욱 더 취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참지 못하고, 의지가 약하고, 어리석게 만들었고, 또한 우리 경험은 그들이 변덕스럽고, 가변적이고, 잔인하며, 거기에다 서로 돕고 협력하는 정신이 결여된 존재임을 말해준다.…모든 여성의 본성 속에는 좋은 통치자 아래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악덕들이 도사리고 있다."

녹스는 자신의 이러한 주장이 혹시나 잉글랜드에 신교 정부가 들어서려는 것을 방해하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며 마지못해 엘리자베스를 하느님이 진정한 복음을 복원하기 위해 보내신 '특별한 경우'라고 인정할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그의 주장이 잉글랜드 내 엘리자베스의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었다. 후일 런던 주교에 오르게 될 존 에일머가 쓴 책 《충직하고 진실한 신민들의 보금자리》는 일견 녹스의 주장을 논박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또 한 명의 여성을 통치자로 선택하신 신이 결정에 당황스러워 하는 그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본성이 나약하고 신체가 허약하며, 용기가 여리고, 일솜씨가 없으며, 거기에다 적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하는' 여성을 통치자로 선택하심은 오로지 기적을 행하시려는 그분의 시험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그는 적었다.[15)]

---

15) Simon Schama, *A History of Britain I: At the Edge of the World?*, pp.287-288.

두 번째 문제는 물리적인 지배수단의 결여였다. 16세기 초기에 이르러 잉글랜드의 왕정은 지방분권적인 중세적 정부를 벗어나 국왕이 전국을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근대적 '국민군주국가(national monarchy)'로 탈바꿈하고 있었지만, 국왕의 조세권은 여전히 중세적 수준에 묶여 있었다. 평상시 국왕 정부의 예산은 여전히 중세와 마찬가지로 왕령지(王領地) 수입과 관세, 그리고 약간의 봉건세 등으로 이루어졌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평시 예산은 재위 초기에는 연간 약 20만 파운드, 재위 말기에는 약 30만 파운드였다. 16세기 후반의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오히려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재위 말기를 기준으로 보면 예산 중 왕령지 수입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관세가 44퍼센트, 봉건세가 약 7퍼센트 정도였다. 보조세(Subsidy)라고 하는 의회세가 있었으나, 이는 전쟁, 그것도 외침에 의한 방어 전쟁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의회가 허여해주는 예산이었다. 즉, 국왕은 오로지 자신의 것만으로 살아야 하고(live of his own), 오로지 국가 위기상황에 한하여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16]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엘리자베스 정부는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담당할 전문적인 관료제도도 갖출 수 없었으며, 정책과 법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상비군이나 경찰력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는 그녀가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엘리트계급의 자발적 협력과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다른 어떤 특별한 수단을 강구해야만 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17]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문제는 종교문제였다. 30년 전 헨리 8세의 이혼 문제와 함께 시작된 잉글랜드의 종교 개혁은 정치적 위기를 함께 불러왔고, 그것은 군주의 잦은 교체와 함께 더 큰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었다. 헨리 8세는 '작은 혁명'을 지향했다. 그것은 로마 교황청과의 결별, 그리고 자

16) 허구생, 《근대 초기의 영국: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1세의 국가 만들기》(한울, 2015), pp.107-108.

17) Penry Williams, *The Tudor Regime*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pp.389-402: William Dunham, "Regal Power and the Rule of Law", *Journal of British Studies*, III (1964), pp.24-56; G. R. Elton, "The Rule of Law in Sixteenth- Century England", Arthur J. Slavin, ed. *Tudor Men and Institutions*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72), pp.266-293.

신이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을 차지한다는 것 정도에 그치는 것일 뿐, 근본적인 교리의 변화를 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547년 그가 죽고 어린 에드워드 6세가 즉위하자, 진정한 프로테스탄트 개혁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새로운 신앙이 잉글랜드 국교회에 유입되고 미사는 완전히 금지되었다. 그러나 1553년 에드워드가 죽고 메리가 왕위에 오르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메리 여왕은 가톨릭 복원을 필생의 과업으로 삼고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이전의 종교개혁 관련 법령들을 모두 무효화시키고, 신교 성향의 사제들을 교회로부터 축출했다. 5년밖에 안 되는 그녀의 짧은 재위기간 동안 약 300명의 개신교 신자들이 화형으로 죽음을 맞았다.

이미 유럽의 많은 지역이 종교 갈등으로 인한 내전과 전쟁을 경험하고 있었다. 잉글랜드만이 여기에서 예외가 될 확률은 극히 적었다. 잉글랜드의 가톨릭 신자들은 숫자는 비록 적었지만 그들이 가진 믿음은 결코 약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들은 언제라도 로마 교황청, 스페인을 중심으로 하는 합스부르크 제국, 그리고 프랑스라는 외부 가톨릭 세력들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가톨릭 신자인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반란을 피해 잉글랜드 안에 몸을 위탁한 이후에는 그 위험성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의 5촌 조카로서 왕위계승 후보의 자격 또한 갖추고 있었다. 반대편에는, 메리 여왕 치하 박해를 피해 제네바로 망명한 후 칼뱅 치하에서 절치부심하며 칼을 갈다가 돌아온 강성 청교도들이 있었다. 그들은 어떠한 타협도 거부하며 오로지 진정한 신교적 교리에 입각한 잉글랜드 교회를 꿈꾸고 있었다. 그들에게 엘리자베스는 하나의 간절한 희망이었다.

IV. 실용적 휴머니즘에 입각한 엘리자베스의 문제 해결

1) 종교적 중도정책(via-media)

엘리자베스의 첫 의회는 1559년 1월 25일 열렸다. 정부의 대변인 자격으

로 개회연설을 맡은 국새상서 니컬러스 베이컨은 새 정부의 임무가 '국민을 하나로 통합된 종교적 질서'로 이끄는 데 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종교적 의견이 다른 동료의원들을 향해 '이단적', '분파분자' 또는 '교황 추종자' 같은 표현을 쓰지 않도록 주문했다. 또한 신학적 논쟁이나 극단적 주장에 빠지지 말고 적절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새 여왕의 의중이 무겁게 담긴 개회사였다.

1559년 2월 종교통일법안과 엘리자베스를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으로 하는 수장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상원에서 부결되는데 주교 전원과 가톨릭인 속인 귀족 일곱 명이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들 법안들은 엘리자베스의 지위를 수장(Supreme Head)에서 총책임자(Governor)로 격하시키는 등 추가적인 타협을 통해 겨우 의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1559년 채택된 엘리자베스의 종교 문제 해결책은 이른바 중도정책(via-media)으로서 가톨릭과 신교 양측의 극단적 주장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민감한 부분에서는 절충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 정책적 특징이었다. 이는 자신의 가장 열성적인 지지 세력이었던 청교도들의 간절한 염원과 희망을 저버리는 처사에 다름 아니었다. 그녀가 중도정책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하다. 소수의 청교도들에 기대어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했으며, 이웃 국가들이 보여주었듯이 끝도 없고 해답도 없는 종교적 갈등을 무제한적으로 증폭시킬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선택한 중도정치 또는 '중간의 정치'는 상당부분 그녀의 창안이었다. 이것은 윤리적 타당성을 따지는 중용의 개념과는 달리 단순하게 양 극단의 가운데 공간을 정책적 허용 범위로 설정한 것으로서 역사적으로 그 선례를 찾기 어렵다. 엘리자베스는 그 같은 중간 영역을 제시함으로써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최소한의 평화와 공생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임을 설득하고자 했다. 그 공통의 공간 안에서 가톨릭은 가톨릭에 가까운 종교의식을 치를 수 있었고, 신교들은 신교에 가까운 의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

우리는 앞에서 엘리자베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친 휴머니즘이 절대적 도

덕과 절대선을 추구하던 에라스무스와 모어 등의 기독교적 휴머니즘과는 거리를 둔 실용적 휴머니즘이었음을 이야기한바 있다. 그들 실용적 휴머니스트들은 법과 정책의 본질적 가치를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었고, 인간의 본능을 낙관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었으며, 사회개혁과 관련하여 실용성, 상대성, 그리고 융통성이라는 방법론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중도정책'은 이들 휴머니스트들의 실용적 사상을 백분 활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그들 휴머니스트들이 마키아벨리로부터 받은 영향이다. 우리는 흔히 마키아벨리를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의 화신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그 오해는 첫 번째, '견제와 균형'의 정치적 원리를 주장하는 그의《리비우스의 로마사 논고》를 읽지 않은 데에서 나오고, 두 번째는, 그의《군주론》을 잘못 읽은 데에서 나온다.《군주론》은 그가 실업자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 군주가 가져야 할 책략을 정리하여 메디치 가문에 올린 것이다.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던 피렌체의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명한 군주와 기민한 책략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이 책에서 제기한 군주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정치적 사려(思慮)'이다. 즉,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정책적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성공적인 정책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사실, 마키아벨리는 정의, 용기, 인내, 정직, 관대함 등의 전통적 덕성들을 군주가 마땅히 가져야 할 중요한 자질과 품성으로 생각했다. 다만, 국가의 존속과 공익이 위협 받을 경우,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최상의 '책략'을 선택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다만 이때 그 책략은 전통적 덕성에 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키아벨리에게 있어서 모든 정치적 행위는 공익을 위해 종사하는 것이며,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나 파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마키아벨리가 가장 경계하고 비난했던 정치적 부패 그 자체였던 것이다.

엘리자베스의 중도정책은 이 같은 휴머니즘적 교육이라는 배경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정책이었다. 그녀의 중도정책이 종교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했

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영국으로 하여금 프랑스의 위그노 전쟁(1562~1598),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난 30년 전쟁(1618~1648) 등, 유럽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극심한 인적, 물적 손실을 피해가게 함으로써 잘해야 유럽의 중급국가이던 영국을 장차 대영제국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 받는다. 이후 영국에서 이 '중도정책' 또는 '중간의 정치'는 합의의 정치를 쉽게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수단이 되었다.

2) 유기체적 공동체, 그리고 사랑의 연대

수사학은 처음부터 엘리자베스가 가진 정치적 수단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 그녀의 연설문은 언제나 그녀가 손수 쓴 것이었고, 여러 차례의 원고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공들여 쓴 것이었다. 통치 초기에는 연설문을 남자들에게 대신 읽도록 했지만, 오래 되지 않아 엘리자베스는 직접 연설문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확실히 특별한 효과가 있었다. 호소력에 더해서 용의주도하게 잘 짜인 그녀의 연설은 때로는 강압적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대중에게 다가가 청중들의 애를 태우거나 겁박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녀가 연설문을 들고 대중 앞에 설 때마다 그녀의 적들과 비판자들은 자신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것임을 직감하면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 나의 사랑하는 신민들이여, 나의 안전을 걱정하는 몇몇 사람들로부터, 무장한 군중과 마주할 때 혹시나 있을지 모를 배신에 대비해야 한다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확언하건대, 나는 내 충성스럽고 사랑하는 신민들을 의심하며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폭군이나 두려워하라고 하세요. 나는 언제나 하느님을 섬기면서 예의 바르게 처신해 왔으며, 나는 내 신민들의 충성스러운 마음과 선한 의지를 내 힘의 가장 강력한 근원으로 삼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보고 있듯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한 가운데에 와 있는 것이며, 또한 나는 지금 오락이나 장난을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전투의 열기가 한창인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모두와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한 단호한 결심으로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는 나의

왕국을 바치고, 나의 신민들에게는, 죽을 각오를 하고, 나의 명예와 목숨을 맡기고자 합니다. 나는 내가 힘없고 미약한 여자의 신체를 가졌음을 알고 있지만, 나는 왕의, 그것도 잉글랜드 왕의, 심장과 복부를 가졌다는 것을 역시 알고 있으며, 그럴진대, 파르마 또는 스페인이나 유럽의 어느 군주이건 간에, 감히 내 왕국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나를 부당하게 멸시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불명예를 키우기보다는, 이에 대항하여 내 자신 스스로 무기를 들고, 내 자신 스스로 여러분의 장군이자 재판관, 그리고 전장에서 여러분 각자가 행하는 모든 미덕을 포상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마땅히 포상과 월계관을 받아야 할 여러분들의 용기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군주의 언어로써 약속드리건대, 이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18)]

이는 1588년 8월 9일, 그녀가 신하들의 걱정과 만류를 뿌리치고 틸버리 군영으로 달려가서 직접 말을 타고 군대를 사열하며 던진 사자후이다. 잉글랜드를 모든 계층의 신민들이 '사랑'이라는 질료로써 유기적으로 결합된 공동체이며 사랑의 연대라고 주창하던 그녀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위기의 시간을 신민과 함께 하는 '국민 속 군주'의 이미지를 유감없이 발휘한 연설이었으며, 키케로가 말한 대중연설의 정수가 고스란히 담긴 명연설이었다.

하원의장, 우리는 그대의 언명과 우리 재산에 대한 염려에 대해 들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확언하건대, 나보다 더 신민을 사랑하는 군주, 혹은 우리의 사랑에 견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진 군주는 없습니다. 결단코 내 앞에 있는 보석보다 더 값진 보석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떤 보물이나 재물보다 존중하기에 그토록 값진 것입니다. 내가 물건의 가치를 따질 줄 몰라서가 아니라, 사랑과 감사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높은 자리에 앉히셨지만, 내가 가진 왕관의 명예는 나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사랑과 함께 이루어졌

18) *Elizabeth I: Collected Works*, eds. Leah S. Marcus *et al*. (Chicago and London, 2000), pp.325-326.

다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신이 나를 여왕으로 만드신 바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감사한 국민들과 함께 하는 여왕이기에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나의 신민들을 만족시키는 것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원할 이유가 없으며, 그것은 내가 가진 의무이기도 합니다. 나는 또한 그대들의 번영을 보고 싶을 뿐, 그것을 넘어 더 오래 살기를 바라지 않으며, 그것만이 내가 가진 유일한 바람입니다. 이날 이때까지 나는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만들고자 했으며, 신의 절대적인 힘으로 내가 그대들을 어떠한 위험, 불명예, 수치, 압제, 억압으로부터 보호하는 신의 도구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부분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도움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었는바,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은 여러분의 그 도움이 나를 향한 그대들의 사랑과 충성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에 관해 이것만은 꼭 말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탐욕스럽게 이익을 다툰 적이 없으며, 어떤 것에 집착하는 군주도, 그렇다고 낭비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어떠한 세속적인 재물에도 마음을 둔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대들이 내게 준 것을 가납(嘉納)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함이요, 재산을 축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내가 하원의장께 간청하건대, 그대가 상상하는 바, 나의 마음이 전하는 뜻을, 그러나 나의 혀로는 형언할 수 없는 그 감사의 정을 그들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19]

이것은 1601년 11월 30일 그녀의 마지막 의회에서 엘리자베스가 행한 연설의 앞부분이다. 통상 여왕은 의회의 폐회일에 맞추어서 대표자들을 불러 연설을 하였는데, 위의 연설은 회기 중에 이루어졌기에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당시 의회는 여왕의 독점권 허여가 일으킨 폐해와 관련하여 논쟁 중이었는데, 여왕이 이에 대해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회기 중이라도 연설을 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틸버리 연설과 마찬가지로 이 연설 또한 고도의 수사적 기술과 감정적 호소로 청중의 마음을 움직인 빼어난 수작으로 평가 받으면서 '골든 스피치'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이 연설에서 여왕은 1593년에 이어 또 다시 신민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신

19) *Elizabeth I: Collected Works*, eds. Leah S. Marcus *et al*. (Chicago and London, 2000), pp.337-338.

민들이 자신보다 더 지혜로운 군주를 맞이할 수는 있지만 자신처럼 신민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자기보다는 신민들의 복리를 더 배려하는 군주는 만나지 못할 것(they may have a prince more wise, but never still they have a prince more lovinge unto them or more carefull of them for theyr welfare then my selfe will be)"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신에게는 그 신민들이 평화와 풍요 속에서 번영을 누리길 원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세속적 욕망이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독점권의 폐해문제는 자신의 뜻과 다르게 발생한 일이며 이로 인해 사랑하는 신민들이 고통 받고 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문제를 거론해준 하원 의원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을 가리켜 자신이 가진 가장 뛰어난 신민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20)]

여왕은 또한 이 연설에서 자신이 가진 '잉글랜드성(Englishness)', 다시 말하면, 잉글랜드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결혼도 하지 않고 나라와 신민들을 위해 희생, 헌신해온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선부(先父)인 헨리 8세에 대하여 잉글랜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기억을 최대한 활용하였다.[21)] 잉글랜드를 독립적이고 위대한 국가로 발전시키는 기틀을 마련한 아버지,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평화와 번영의 제국으로 이끄는 자신의 치적을 연결시킴으로써, 신민을 사랑하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며 처녀왕의 기적으로 왕국을 번영으로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청중들에게 각인시키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미지는 결국 청중들로 하여금 독점권 문제와 관련하여 여왕도 선의(善意)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작용했을 것이다.

상비군, 경찰, 직업적 관료제도 등 법과 정책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지 못한 튜더 왕조의 군주들은 신민들의 자발적 복종과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효율적인 통치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미혼의 여성 군주라는 취약성을 가진 엘리자베스의 경우는 보다 특별한 방책이 필요했다.

---

20) T. E. Hartley, ed. *Proceedings in the Parliaments of Elizabeth*, III, (Leicester University Press, 1995), pp.28-29.

21) David Loades, *Elizabeth I: Golden Reign of Gloriana* (Richmond: the National Archives, 2003), pp.84, 89.

엘리자베스의 선택은 휴머니즘을 중심으로 당시 잉글랜드 엘리트들에게 확산되어 있는 '커먼웰스'사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그 공동체의 중심에 자신을 확실하게 위치시키는 것이었다. 잉글랜드는 모든 계층의 신민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로서, 다른 사람의 행복이 없이는 자신도 행복할 수 없으며, 사회 없이는 개인도 살아남을 수 없는 공동운명체였다. 여기에서 여왕은 신과 인간, 인간과 자연을 매개하는 우주론적 존재이며 공동체의 중심에 서있는 유일한 통합자의 위치를 가진 인물이었다. 또한 여왕은 공동체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할 뿐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사악한 병균을 몰아냄으로써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갈 책무가 있었다. 이러한 여왕의 특별한 위치는 사회 엘리트 계층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으며 이는 의회일지에 기록된 의원들의 발언들에 의해서 확인된다.[22)]

유기체적 공동체가 생명을 가진 조직체로서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군주와 신민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터인데, 엘리자베스는 이를 '사랑'의 관계로 규정했다. 엘리자베스는 1592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나에 대한 그대들의 사랑(your love for me)'은 부모의 사랑도 아니고, 친구 사이의 사랑도 아니고, 연인 사이의 사랑도 아닌, 커먼웰스 공동체에서 작동하고 있는 하나의 핵심 기능으로 규정한 바 있다. 즉 사랑은 공동체적 책무였다. 르네상스 휴머니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미친 신플라톤주의의 우주관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부분들(parts)이 상호 협력적 구조 속에서 각자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인데, 엘리자베스는 이 공동체를 원활하게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질료를 쏟아 부은 것이다. "나는 신민들에게 빛을 주고 안락함을 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진정한 처녀초의 심지(a taper of true virgin wax)로 살아온 삶에 만족한다." 이는 1601년 그녀의 마지막 의회 폐회연설에서 남긴 말이다.[23)]

엘리자베스는 상징적 권력을 창출하여 부족한 물리력을 보완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고 이를 위해 초상화를 활용하는 전략을 성공적

22) *Proceedings*, p.22.
23) *Proceedings*, p.278.

으로 펼쳤다. 새끼들에게 먹일 먹이가 부족할 때 스스로의 가슴을 쪼아 피를 내서 먹이는 펠리컨을 통해 자기희생의 이미지를 부각시켰고,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녀 투치아의 체를 통해 순결한 처녀가 가지는 신성한 능력을 과시했다. 투치아는 자신의 순결을 의심받자 티베르 강가에서 구멍 뚫린 체에 물을 담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베스타 사원까지 운반하는 기적을 행했다. '태양이 없이는 무지개도 없다'는 글이 들어있는 '무지개 초상화'는 처녀 여왕이 이끌어낸 국민적 평화와 번영을 상징했으며, 스페인 무적함대의 파멸을 배경으로 하는 '아르마다 초상화'는 신이 처녀여왕의 존재를 신뢰하고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선전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24)]

그녀의 대중연설은 이렇듯 자신의 취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전환시킨 초상화의 또 다른 버전이었고, '사랑'을 주제로 하는 그녀의 담론체계는 유기체적으로 결합된 커먼웰스 공동체의 가장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켰고, 그럼으로써 숱한 난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게 해주었다. 그녀가 아무리 뛰어난 자질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다 하다라도 당대 일급의 휴머니스트들의 교육이 없었다면 이런 성취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

24) 허구생, 《근대 초기의 영국: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1세의 국가 만들기》(한울, 2015), pp.44-71.

Abstract

The Success of Elizabeth I of England and Her Education based on Renaissance Humanism

Hur, Goosaing
(former Director of Institute of International Culture and Education, Sogang University, Ph.D. in History)

Queen Elizabeth I of England (reigned: 1558~1603) is evaluated to have laid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a world-class empire by saving the country from crisis due to national conflict and division. Although she had the critical weakness of being the first female monarch in the history of England, she was able to overcome numerous difficulties such as religious conflicts between Catholicism and Protestantism and build successful achievements. There were fresh policy ideas centered on Renaissance humanism, prompt judgment of the situation and the 'political prudence' in choosing the policy means of the government, and excellent speech ability to effectively persuade the people behind of her brilliant success.

Her religious 'via-media; middle way' policy she chose was a religious compromise that thoroughly excluded the extreme claims of Catholicism and Protestantism and left room for compromise in sensitive areas. Unlike the moderation for ethical feasibility, it simply set the middle zone across the middle of the two extremes, and it was largely Elizabeth's invention. Also, Elizabeth made full use of the commonwealth community theory, which was spreading to the elite at the time, and she used a strategy to place herself at the center of the community. Through her speeches on the battlefield, in college,

and more frequently in Parliaments, she effectively imprinted on the people that she was a cosmological being, a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man and nature, and the sole integrator of the community. In particular, she succeeded in securing the voluntary cooperation and consent of her subjects by def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erself and her subjects as ‘solidarity of love’.

Behind all of her success was her education, grounded in her Renaissance humanism, which she received from a group of humanists. Her direct teachers, William Grindal and Roger Ascham, and other Cambridge men including John Checke, Richard Cox, and Thomas Smith, were the foremost scholars of her day. They shared pragmatism, relativism of law, and the ‘commonwealth’ idea. In particular, their idea to instruct the teenage girl in a discipline that most thought profoundly unfit for a woman at all, the art of public speech, was fully outstanding.

Keyword ● Elizabeth I, Elizabeth's educational background, renaissance humanism, commonwealth theory, Elizabeth's public speech

▌논문투고일 : 2022. 6. 12. ▌심사완료일 : 2022. 6. 18. ▌게재확정일 : 2022. 6. 26.

『리버럴아츠』(*Liberal Arts*) 편집위원회 운영 및 심사 규정

규정제정일: 2021년 7월 16일

제1조(편집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구성)

1)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Liberal Arts*의 편집과 출판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수록될 논문의 심사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행한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로 구성한다.
4) 편집위원장은 연구소 소장이 위촉한다.
5)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는 12인 내외로 구성한다.
7) 편집위원은 학문적인 조예가 깊고, 연구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 연구자 가운데 전문성, 대내외적 인지도, 경력사항, 연구실적, 연구소기여도, 지역 등을 고려하여 소장과 편집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8) 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최소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9) 편집위원회는 연구소에서 추진하는 기타 출판 사업과 관련하여 이를 지원하도록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무)

1) 편집위원장은 *Liberal Arts*의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학술지와 관련하여 제반 대외 업무를 수행한다.

2)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회의를 주관하고, 원고를 투고 받아 관리하며, 심사를 진행한다. 편집회의에 투고된 원고를 보고하면서 각 논문마다 전공분야에 맞는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해당 논문에 대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관리한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편집회의에서 논문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위임받은 논문에 대한 심사를 수행한다.

4)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연 2회 이상 학술지의 편집방향과 특성에 대해 협의한다. 특히 특집호를 기획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편집계획을 수립한다.

제3조 (원고 접수, 논문 심사, 사후 관리)

1) [접수 및 관리] 투고된 원고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절차는 편집위원장이 총괄한다.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원고마다 투고자의 인적 사항, 논문 투고 및 심사 현황, 출판 등 사후 관리를 일람할 수 있는 원고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2) [심사 송부] 논문의 심사는 심사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 투고자와 심사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blind test) 인비로 진행한다. 편집위원장은 접수한 논문의 저자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삭제한 후 심사위원회에 송부한다.

3) [심사위원 위촉]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그 논문에 적합한 전공분야 3인의 편집위원으로 연구 기여도, 심사경력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의 편집회의에서 선정하여 위촉한다.(편집위원 중에 해당 분야 적임자가 없을 시에는 다른 회원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4) [심사 일정]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은 후 2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심사결과서와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5) [심사 기준] 논문심사는 아래의 심사 평가서 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심사자는 평가결과를 연구소의 심사결과서 양식에 따라 서술식으로 평가하고 종합평가 결과를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 택일하여 판정한 후 논문심사결과서를 잼스에 제출한다. '게재 가' 판정이 아닐 경우 그 이유나 수정-보완 지시 및 게재 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평가 항목	기준	배점				
연구 주제의 창의성	15	15	12	9	6	3
연구 내용의 충실성	15	15	12	9	6	3
연구 방법의 타당성	15	15	12	9	6	3
논리 전개의 일관성	15	15	12	9	6	3
초록의 완성도	10	10	8	6	4	2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10	10	8	6	4	2
선행 연구 검토 및 차별성	5	5	4	3	2	1
관련 자료의 적절성	5	5	4	3	2	1
학술지 성격과의 부합성	5	5	4	3	2	1
원고 형식의 적합성	5	5	4	3	2	1

6) [게재 판정] 심사위원은 논문을 평가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다. 편집위원회의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는 판정표에 따른다.

<심사판정표>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판 정
1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2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3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4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불가	
5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게재	

6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7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8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9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10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11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12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13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4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5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위의 심사판정표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하되, 표에 제시되지 않은 판정이 나오거나 논의가 더 필요한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7) [심사 결정 및 보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3인의 논문심사 보고가 완료되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투고자에게 통지하며, 이때 심사위원 3인의 심사평 사본을 심사자 인적사항을 삭제한 후 첨부한다.

8) [논문 수정 및 재심사]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 때는 수정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적어 논문 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정 보완 혹은 재심을 위해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재심사는 1차 심사 위원 1인이 참여하고 2인의 신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진행한다. 재심사의 경우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이나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그 논문은 해당 호에 게재할 수 없다.

9) [심사결과 통보] 접수된 모든 논문은 연구소 일정에 따라 20일 이내에 필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필자에게 유선이나 전자우편으로 게재 확정을 통보하고, 논문의 집필자가 학술지 발행 전에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편집위원장은 이 증명서를 발급한다.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집필자에게 <게재 불가 통

지서>를 발송한다. ‘수정 후 게재가’나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받은 논문은 편집위원(심사위원)의 심사평과 함께 수정 후 다시 제출할 일시를 적시하여 수정제의서를 발송한다.

10)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논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에게서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5일 이내에 서면 혹은 전자메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논문 제출자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하고, 해당 심사위원은 5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단,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편집위원회 ⅔이상의 동의를 얻는 논문에 한해 재심을 진행한다.

11) [수정제의 수용원칙] 논문 집필자는 편집위원회의 수정제의가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정제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반론문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편집위원장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수정제의를 수용하지 않고 재심요구도 없는 경우와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리버럴아츠』(*Liberal Arts*) 투고 규정

규정제정일: 2021년 7월 16일

제1조(규정) 동국대학교 다르마교양교육연구소 학술지 *Liberal Arts*의 논문 투고에 관한 규정을 둔다.

제2조(발간 일정)

1. 학회지의 발간은 연 2회로 하며, 발간일은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2. 논문의 투고 마감일은 4월 30일, 10월 31일로 한다.
3. 마감 시한을 변경이 필요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지한다.

제3조(투고 자격)

1. 논문 투고 자격은 원칙적으로 교양교육 연구에 관심 있는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의 연구자로 한다. 다만 석사과정생의 경우는 지도교수의 추천과 연구소장의 결정에 따라 투고할 수 있다.
2. 원고는 순수 학술논문으로서 다른 지면에 게재되지 않았으며 게재될 예정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
3. 원고는 동일 내용으로 타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할 수 없다.

제4조(투고 방법)

1. 논문의 투고는 연구소의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메일(E-mail)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위원회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논문 형식)

1.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원고작성 요령'을 따라야 하며 국문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논문도 가능하다.
2. 원고 작성 원칙에 맞지 않거나 논문의 구성 요소가 미비한 논문은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3. 국문초록의 경우 400~600자, 3~4개 문단으로 작성되며 5개 내외의 국문 주제어를 제시하여 논문과 관련된 주제들을 통해 논문의 중심내용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4. 학문의 세계화를 지향하여 논문의 초록은 국문과 함께 영문으로 작성하여 함께 게재하고 영문초록은 일반적으로 300단어 내외로 구성되고 있고 주제어도 5개 내외로 한다.

제6조(개인 정보)

1. 저자의 이름이나 소속 등은 노출되지 않게 한다.
2. 인용된 논저를 포함하여 투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배제한다.

제7조(접수 제한)

1. 수정재심 혹은 반려 논문의 재투고 시에는 수정 요구 사항을 반영 후 투고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사항 반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거부나 반려될 수 있다.

제8조(권리 양도)

1.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한다. 최종 수정된 원고를 송부시 홈페이지에 공지된「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서명하여 첨부함으로써 홈페이지 상에서 무료로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투고시스템을 통한 전자 서명도 같은 효력을 갖는다.
2. 학회지의 발행인은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

의를 제기할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리버럴아츠』(*Liberal Arts*) 원고 작성 방법

Ⅰ. 원고 형식

1. 원고분량은 각주, 표, 그림이 포함된 본문과 참고 문헌, 초록과 키워드를 합하여 학회에서 정한 편집용지(아래 II. 3 참조)의 25쪽 이내로 한다. 25쪽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쪽 당 1만원의 인쇄비를 본인이 부담한다. 단, 최대 분량은 35쪽을 초과할 수 없다.
2. 원고 분량은 아래와 같은 초기(default) 지정치를 기준으로 한다.

3. 원고 기본값

1) 편집 용지(F7)

용지 종류	사용자 정의: 폭: 152 길이: 225	
용지 방향	세로	한쪽
용지 여백	위쪽: 25.5	머리말: 13
왼쪽: 22.5	제본: 0	
오른쪽: 22.5		
아래: 28.5	꼬리말: 0	

2) 원고 기본값(본문 스타일) *들여쓰기 -26은 내어쓰기 26을 의미함.

	문단모양					글자모양					
	여백 왼쪽	여백 오른쪽	줄 간격	정렬	들여 쓰기		글꼴	장평	자간	크기	글자 속성
논문 제목			160	중앙	0	국문 영문	신명조	100	-10	15	볼드
논문 부제			166	중앙	0	국문 영문	신명조	95	-8	10.4	보통

		문단모양					글자모양					
		여백 왼쪽	여백 오른쪽	줄 간격	정렬	들여 쓰기		글꼴	장평	자간	크기	글자 속성
필자: 이름				130	중앙	0	국문 영문	신명조	90	-8	11	보통
필자: 소속				130	중앙	0	국문 영문	신명조	94	-7	8	보통
국문 초록				160	양쪽			신명조	100	-5	9	보통
본문	내용			166	양쪽	10	국문 영문	신명조	95	-8	10.4	보통
	대제목			160	양쪽	0	국문 영문	신명조	97	-2	12.7	볼드
	중제목			160	양쪽	10	국문 영문	신명조	90	-7	10.5	보통
	소제목			172	양쪽	0	국문 영문	신명조	92	-8	10	보통
	인용문	15	15	140	양쪽	10	국문 영문	신명조	95	-5	10	보통
	각주			140	양쪽	0	국문 영문	신명조	95	-7	8.3	보통
참고 문헌	참고 문헌 제목			160	중앙	0		신명조	100	-5	11	볼드
	참고 문헌 내용			145	양쪽	-26	국문 영문	신명조	100	-5	9.2	보통
논문 초록	Abstract			160	중앙			신명조	100	-5	12	볼드
	논문 제목			160	양쪽		국문 영문	신명조	100	-5	14	볼드
	논문 부제			160	양쪽		국문 영문	신명조	100	-5	12	보통
	필자: 이름/소속			160	중앙		국문 영문	신명조	100	-5	11	보통
	내용			160	양쪽		국문 영문	신명조	100	-5	10.3	보통
주제어 / 필자의 이메일				160	양쪽		국문 영문	신명조	100	-5	9	보통

Ⅱ. 원고 구성

1. 초록

1) 국문 초록

- 논문의 제목과 필자명을 기입하고 3행을 띄운 다음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국문 초록과 주제어를 쓴다. 국문 초록은 15～20행으로 작성한다. 주제어는 5개 내외로 제시한다.
- 제목 다음에 위치시킨다.

2) 영문 초록

- 영문 제목과 초록 및 주제어는 국문 제목과 초록 및 주제어에 준하며, 분량도 동일하다.
- 논문 집필자의 성명은 성, 이름 순으로 표기하고, 성명 아래 소속을 표기한다.
- 참고 문헌 목록 다음에 위치시킨다.

2. 제목

- 제목과 부제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행을 바꾸어 줄표(-)로 구분한다.

3. 필자명(소속, 직위, 이메일)

1) 필자명은 제목 아래에 넣으며, 필자의 소속, 직위, 이메일 주소는 각주로 처리한다.
2) 공동 논문의 경우, 제1저자명, 제2저자명 등의 순서로 표기한다.
3) 공동 논문의 경우, 각주에서 제1저자, 제2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등을 구분하여 소속 앞에 표기한다.
   - 예 1 : (단독 논문의 경우) 한국대학교, 교수, han@hankook.ac.kr

- 예 2 : (공동 논문의 경우)

(1) 제1저자, 한국대학교, 교수, han@hankook.ac.kr (2) 교신저자, 한국대학교, 강사, kang@hankook.ac.kr (3) 공동저자, 한국대학교, 연구원, min@hankook.ac.kr

4. 본문

1) 한글-외국어 병기

- 본문은 순 한글을 원칙으로 하며 한자와 외국어는 의미전달상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첫 번째 한글 옆 괄호 속에 기재한다.

2) 목차

- 목차의 표기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 제목별 예시: 대제목: 로마자 I, II, 중제목: 1, 2, 소제목: 1), 2)
- 전체 항목 예시: I, 1, 1), (1), 가

3) 인용

- 2행 이하의 짧은 인용은 본문 안에 기술하고, 3행 이상의 인용은 본문에서 분리하여 기술한다.
- 본문에서 구별된 인용문의 경우, 인용문의 위아래 1행 띄우고, 따옴표는 생략한다.

4) 인용 출처 표기

(1) 모든 인용의 출전 표기는 본문에서 기술하는 내각주로 처리하며, 내각주는 괄호 안에 저자, 출판 연도, 쪽수만을 표기한다.

- 예 1: (홍길동, 2014, 123)
- 예 2: (홍길동 · 김길동, 2014, 123)

- 예 3: (홍길동, 2014, 123; 김길동, 2016, 235)
- 예 4: (촘스키 · 할레, 2020, 235)
- 예 5: (Chomsky & Halle, 1968, 23)

(2) 본문에서 구별된 인용문의 출전 표기도 인용문 마지막에 내각주로 처리한다.

(3)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각주로 처리한다. 필요한 경우 본문에 내각주 처리를 하고, 각주 번호를 붙인 후 관련 설명만 각주에 기술한다. 각주의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는다.

5) 표와 그림

-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절한 위치에 <표 1>, <그림 1>의 형식으로 순서대로 제시한다.

5. 참고 문헌

1) 새로운 면에 '참고 문헌' 제목을 쓴 후, 1행 띄우고 시작한다.
2) 참고 문헌 목록은 본문에서 인용 또는 언급한 것으로 제한한다.
3) 원전과 번역서를 구분하지 않고 국문 문헌, 외국 문헌 순서로 배열하되, 외국 문헌은 동양어 문헌, 서양어 문헌의 순으로 작성한다. 국문 문헌 및 동양어 문헌은 저자명의 가나다 순으로, 외국 문헌은 저자명(성)의 알파벳 순으로 작성한다.
4) 논문이나 저널, 단행본 안에 들어 있는 글의 경우, 게재된 쪽수를 밝힌다.(아래 예 참조)
5) 저자명, 발행 연도, 저서 혹은 논문 제목 순으로 표기하고, 쉼표로 구분한다.(아래 예 참조)

· 참고문헌 작성의 예

- 예 1: 홍길동, 2001, 「논리적 사고와 근대성의 한계」, 한반도(편), 『생

각의 숲과 표현의 나무』, 새봄.

- 예 2: 홍길동 · 김길동, 2005,「의사소통적 합리성과 논리적 글쓰기」, 『사고와 표현』 제5집, 3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10-230.
- 예 3: 홍길동, 2008,「종교적 사고에서 나타나는 논리성의 의미」, 박사학위논문, 한국대학교.
- 예 4: 홍길동, 2009,「상상력에 권력을!」,『표상일보』, 2006. 02.10.
- 예 5: 코프만, 헬무트, 2011, 홍길동 역,『수사와 설득』, 표현문고.
- 예 6: Chomsky, N. & Halle, M.,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per & Row.
- 예 7: Panitch, Leo, 2012, “Growth Industr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31, no.2, 128-146.
- 예8: Winkler, Jack T., 2013, “The Corporatist Economy”, Richard Scase (ed.), *Industrial Society*, London.
- 예 9: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08_new/i ndex.jsp (검색일: 2002.01.15).

Ⅲ. 저자의 익명성 처리

1. 논문 투고자는 저자의 익명성을 지키는 데 유의해야 한다. 심사용 원고의 경우 겉표지 외에는 저자 성명, 소속 기관명, 인터넷 주소, 동료에 대한 감사의 글 등 저자의 신원이 파악될 수 있는 어떠한 단서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2. 투고자 자신이 이전에 출판한 문헌을 심사용 원고의 각주나 참고 문헌에 인용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며, 논의의 전개상 그 인용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자 이름을 ‘OOO’으로 처리한다.

3. 논문 투고 일 년 이내의 시점에 공식 학회나 세미나에서 발표한 원고를 이전과 동일한 제목으로 제출할 경우 발표 당시의 학술회의명과 패널리스트(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전원) 명단을 논문 접수 시에 알려야 한다. 해당 정보의 누락으로 동일 패널리스트가 논문을 심사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 결과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리버럴아츠』(*Liberal Arts*) 연구윤리규정

규정제정일: 2021년 7월 16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동국대학교 다르마교양교육연구소의 학술지인 *Liberal Arts*의 투고 및 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기준과 원칙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술지는 학술연구 저작들을 엄정하게 심사하여 선정하고 게재한다. 이에 따라 학술지에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 저자뿐 아니라 편집위원(장)과 심사위원들의 연구윤리 규정을 명확하게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2조(저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

1) (저자의 의무) 본 연구소의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는 논문투고 전에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필독하고, "연구윤리규정 준수 이행서"에 서명해야 한다.

2)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과정과 결과물에서 행해지는 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자료의 중복사용 등의 모든 부정행위를 지칭한다. 아래의 각 부정행위의 정의는 "대한민국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을 따른다.

① 표절: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모든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②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③ 변조: 연구 자료,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④ 자기표절: 자신이 이미 발표한 논문 및 연구결과물(비학술단체 발간물, 학술대회 발표문, 연구용역보고서 등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붙지 않는 발표물은 제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하거나 그 논문 및 연구결과물의 일부나 전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다른 논문 및 연구결과물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⑤ 부당한 저자 표시: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⑥ 부당한 중복 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⑦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⑧ 특수 관계인 공동저자: 저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가. 연구자는 논문 투고 전 반드시 학회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나. 연구자는 특수 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및 논문 공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연구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다. 편집위원회는 특수 관계인 논문 투고 시 개인정보 제공 사전 동의를 연구자로부터 확보한다.

라. 학회는 특수 관계인 공동저자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연구윤리 위원장, 편집위원장, 편집장으로 구성된 별도의 내부 심사 위원회를 구성한다.

마. 학회는 특수 관계인 공동저자 연구 부정행위 확정시 학회 연구윤리 위원회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다.

바. 학회는 연구윤리위원회 명의로 특수 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에 해당 특수 관계인의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⑨ 기타: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3) (저자 인정 및 책임) 저자는 자신이 행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이를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① 저자 순서: 게재된 논문의 연구자가 여러 명일 때 저자의 표기 순서는 원칙적으로 상대적 지위와 소속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른다.

② 저자 책임: 저자로 명기된 연구자는 게재된 논문에 대해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며, 공동 저자 및 교신저자의 경우에는 논문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진다.

③ 저자 신뢰성: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4) (중복 출판 금지 및 부분 중복 게재)

① 중복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에서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이중으로 투고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던 논문도 본 학회지 『리버럴아츠』에 중복 게재할 수 없다.

② 부분 중복 게재: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5조 1항에 의거 본 학회지 『리버럴아츠』에 게재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다른 학회지에 중복 게재할 수 없다. 다만,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의 확대 · 발전이 불가피하여 부분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다른 학회지에 게재 및 출판할 수 있으나 부분 중복 게재한 논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명기한다. "본 연구는 『리버럴아츠』 00권 00호 00-00쪽에 게재되었던 논문으로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원문을 부분 인용 혹은 부분 수정 · 보완하여 게재함을 밝힌다." 또한 학위논문의 축약본 혹은 부분 중복과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하여 게재하는 경우에도 부분 중복의 내용을 논문의 첫 쪽 하단에 명기하도록 한다.

제3조(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

1)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제반 과정을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2)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사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단지 투고 논문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3) 편집위원(회)은 학술활동,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적합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한다. 단, 동일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간의 평가결과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최종 판정할 수 있다. 또한,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의 심사는 배제하려 노력한다. 다만, 소외 학문 분야나 주제 등 3인 전체를 비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로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편집위원장 중심으로 회의를 거쳐 1명까지 동일기관 소속의 심사자를 지정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5) 편집위원(회)은 심사위원의 논문심사 결과와 관련한 문제와 부정행위와 관련된 문제 제기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속하게 알리고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

1) (심사위원의 의무)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하는 논문심사를 심사 규정이 정한 일정기간 내에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2-3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2) (심사의 공정성) 심사자로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저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엄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의 개인적인 관점이나 학술적 경향에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대상 논문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3) (부정행위 통보)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4) (저자에 대한 존중) 심사위원은 논문 투고자의 학술적 독립성을 존중해

야 하며, 심사평가서의 의견란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학술적 견해와 판단을 상세히 기술하되, 수정 ·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수정요구 시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과 어법을 사용해야 하며, 학술적으로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쓰지 말아야 한다.

5) (논문내용 및 심사결과의 비공개)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 및 심사에 대한 모든 절차를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안 되며, 투고된 논문이 게재 확정되어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심사결과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소의 소장,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연구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하거나 윤리위원에서 호선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운영)

1) (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그 진실성을 검증하는 과정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연구윤리위원과 외부전문가 약간 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활동을 시작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가 완결된 후 해산한다.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으로 한다.
   ④ 학회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2) (조사위원의 의무와 자격정지)
   ① 조사위원은 심의에 있어 진실함과 공정함에 기초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을 사적으로 공표하

지 않아야 하며, 검증과정에서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은 심의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거부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은 자신과 사안 사이에 심의의 공정함을 침해할 정도의 관련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조사위원의 연구 결과 혹은 행위가 심의 대상이 될 경우, 당사자는 즉시 해당 심의 안건의 조사위원 자격이 정지된다.

3) (연구윤리위원 제척) 위원이 심의 대상이 되거나,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을 갖지 않으며, 위원회 구성 절차에 따라 1인의 위원을 충원한다.

4) (심의 요청)

① 학회 회원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저술 행위가 본 학회 윤리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전항에 따른 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한다.

5) (제보자 및 대상 회원의 권리보호)

①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보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와 문제 제기가 허위이며 대상 회원에 대한 의도적인 명예 훼손이라 판단될 경우 향후 학회 활동을 제한하는 등 허위 제보자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대상 회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학회와 위원회는 조사나 검증 결과 연구 관련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대상 회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심의를 완료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6) (심의 절차)

① 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논의를 통하여 자체 심사 또는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 심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 의결 · 결과조치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가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대상이 된 행위에 대하여 연구윤리와 진실성 검증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필요 시 심의 대상 회원, 심의 요청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심의 대상 회원이 위원회의 면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완료하기 전에 대상 회원에게 연구 윤리 저촉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심의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대상 회원 또는 제보자의 재심의 요청이 없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 · 의결 결과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하며 조사위원회는 해산한다.

⑧ 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심의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7) (결과 보고)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한다. 심의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① 윤리규정 위반 내용

② 심의 절차

③ 심의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④ 심의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8) (징계 절차 및 내용) 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중복 징계할 수 있다.

① 경고 및 논문 철회

② 회원 자격 정지 혹은 박탈(5년 이내 회원 가입 금지

③ 향후 5년간 논문투고 금지

④ 출판된 논문 무효 처리

9) (후속조치)

①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판정 및 조치가 확정되면 조속히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② 조치 후 그 결과는 인사비밀 문서화하여 보존한다.

③ 필요한 경우 연구지원기관에 결과조치를 통보한다.

10) (윤리 규정의 수정) 윤리 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 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11) (행정사항)

①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받은 제반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 정윤길(동국대)

◇ 편집 위원 :

남근우(동국대), 남진숙(동국대), 박진희(동국대), 박현희(서울대), 성백용(한남대)
신용인(제주대), 윤승준(단국대), 윤혜경(동의대), 이철호(대구교대), 장수철(연세대)
전종윤(전주대), 조혜경(대구대), 최훈(강원대), 임명희(공주교대)

<연구윤리위원회>

◇ 연구윤리위원장 : 이원석(동국대)

◇ 연구윤리 위원 :

김덕수(서울대), 김성숙(연세대), 김제욱(한서대), 하병학(가톨릭대)

리버럴아츠 제2권 1호

발행일 : 2022년 6월 30일
발행인 : 손윤락
발행처 : 동국대학교 다르마교양교육연구소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Tel. 02)2290-1630
홈페이지 https://dharma.dongguk.edu
전자우편 liberalarts.kr@gmail.com
인쇄처 : 주호기획